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 단모음을 중심으로 -



2007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 어 국 문 학 과

김 경 미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단모음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희 섭

이 논문을 국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 어 국 문 학 과

김 경 미

김경미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7년 2월



주 심 문학박사 채 영 희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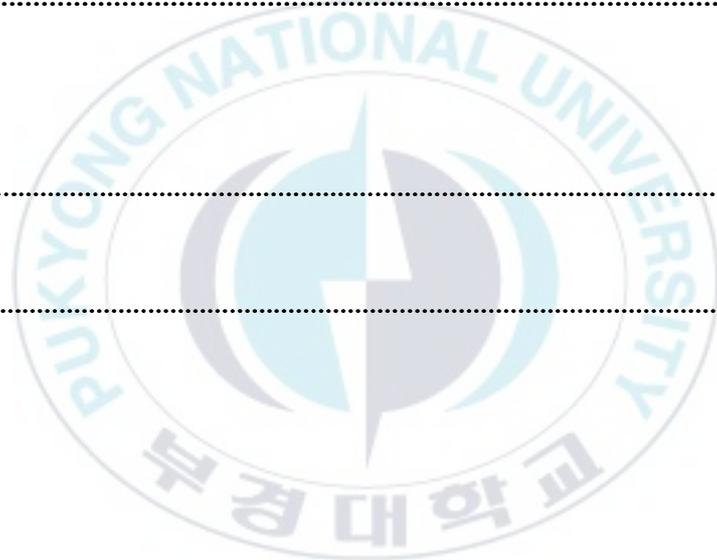
위 원 문학박사 박 영 준 (인)

위 원 문학박사 김 희 섭 (인)

목 차

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5
2.1 발음 지도의 중요성	5
2.2 언어 교수법에 따른 발음 교육의 변천	7
2.3 발음 지도에 관한 선행 연구	13
3. 발음 오류의 원인과 분석	22
3.1 단모음 체계의 차이로 인한 발음 오류	22
3.2 음절 구조의 차이로 인한 발음 오류	27
3.3 종성 폐쇄음으로 인한 발음 오류	31
3.4 중국어 성조로 인한 발음 오류	36

4. 발음 지도 방안	39
4.1 입 모양과 혀의 움직임을 이용한 발음 지도	40
4.2 음철법에 의한 발음 지도	45
4.3 종성 폐쇄음 발음 지도	49
4.4 한국어의 장단과 억양을 이용한 발음 지도	50
5. 결론	54
참고문헌	57
부록	61



<부록 차례>

<부록 1> 한국어 학습자의 기초 인식 조사 61
<부록 2>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교육에 대한 태도 조사 62
<부록 3> 한국어 교사의 발음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63
<부록 4> 단모음 소리 내는 혀의 위치와 입 모양
-중국어와 한국어 모음 사각도 64

<표 차례>

<표 1> 발음 교육의 변화 과정 11
<표 2> 학습 기간과 발음 상태의 상관관계 25
<표 3> 한국어 음절 구조의 유형 26
<표 4> 중국어 음절 구조의 유형 27
<표 5> 음절 구조로 인한 발음 오류 실태 28
<표 6> 청 지각 판단 자료 32
<표 7> 성조에 의한 의미의 차이 36
<표 8> 중국인 학습자의 단모음 오류 실태 39
<표 9> 장단과 억양을 이용한 발음 지도 53

Teaching Korean Pronunciation for Chinese Students

Kyoung-mi Kim

*Graduate School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develops a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resolving Korean simple vowel pronunciation problems faced by Chinese learners. The research suggests that teaching Korean simple vowel pronunciation through phonetic awareness is an effective but insufficient approach, in part, because phonics does not address the linguistic patterns that Chinese students bring to the Korean language classroom. A progressive approach to the instruction of Korean simple vowels, one which builds upon the student's knowledge of their native language words sounds - with an emphasis on Korean pronunciation and fluency is recommended before advancing to complex systems that require the student to learn new word structures and grammatical rules.

Linguistic differences between Chinese and Korean and their concomitant association with Korean language pronunciation problems are well documented in a body of research that typically takes note of the Chinese learner's difficulty in pronouncing Korean words with a final consonant. One area of linguistics analysis that has received comparatively less attention is the relationship between rising and

falling pitch in the Chinese language and the pronunciation of Korean simple vowels. Results from an informal pronunciation assessment of 25 Chinese students studying Korean indicate that the learner's natural tendency towards pitched pronunciation negatively influenced the production of Korean long and short simple vowels. Pronunciation problems were observed for words that ended in a simple vowel (consonant-vowel constructs) and complex structures ending in a consonant (consonant-vowel-consonant constructs). Patterns of poor phonetic production were observed for students at the beginner level and intermediate-level learners who have studied Korean for three years or more.

A broad four-step approach to teaching Korean pronunciation to Chinese students was developed. This approach includes: a detailed description of mouth and tongue placement for including diagrams for eight simple vowels; phonics-based techniques to build pronunciation skills of words with a consonant-vowel(C-V) construct, a word structure that parallels the student's native language structure; non-phonics based techniques focusing on complex sounds with consonant-vowel-consonant(C-V-C) constructs accompanied with grammar-based explanations appropriate for learners with an intermediate to advanced level of communicative competency; an instructional map demonstrating long and short Korean simple vowels pronunciation expectations using specific Chinese language vowel pitches.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외국어 교육에서 그 대상이 성인인가 아동인가에 따라 교수 학습 방법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¹⁾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목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소리를 익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성인 학습자들의 경우는 오랫동안 모국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미 모국어 체계에 따른 발음 습관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외국어를 제대로 발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한국어 발음 교육에 대한 교수 방법들을 통해 발음 오류의 원인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교실 수업에서 적용 가능한 지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외국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발음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와 중국어라는 두 언어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잘 인지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언어 교사가 반드시 학습자들의 언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언어 교사가 학습자의 모국어를 잘 할 수 있다면 유리하겠지만 학습자 언어의 음운 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만으로도 지도가 가능하다.

1) H. Douglas Brown(2004)에서는 유아의 모국어 습득 원리를 외국어 학습 방법에 적용시켜 보다 쉬운 접근법을 찾고자 하였다.

한국어의 효율적인 발음 교육을 위해 반드시 발음 교육은 초기 학습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부분 한국어 발음 교육의 시기는 초급 단계에서만 몇 시간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중급이나 고급 단계로 갈수록 발음 교육에 할애되는 시간은 줄어든다. 발음 교육은 초기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중급, 고급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오대환(1999)에서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정확성을 뜻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발음을 확실하게 하여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학습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을 했다. 또한 발음은 언어의 전이성이 있어 듣기와 쓰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정확하게 들을 수 없다는 것이며 결국 정확하게 쓸 수도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²⁾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초기 학습 단계에서 일어나는 부자연스러운 발음과 중국어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들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해결해서 원어민에 가까운 실제 음을 낼 수 있는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어 학습의 목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³⁾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이런 의사소통 능력이란 일상생활에서 발화 시 서로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미를

2) 전은주(1999)에서는 음성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서 말하기와 듣기는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3) 고경석(2002)에서는 ‘의사소통’을 발음 지도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파악하고 상대방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유신혜(2001)에서는 발음 지도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고 하였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발음 지도 방법과 경향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발음 지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는 발음을 지도해도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유신혜(2001)에서 제시한 부정적인 견해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들이 처음부터 발음에 대한 정확한 학습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한국어 교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음 교재에 대한 부재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실제 발음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실험 연구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여 발음 교육을 한다면 발음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점차 소멸될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언어권별로 분리되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⁴⁾ 2000년대에 들어서는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들을 위한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어권⁵⁾이나 일본어권⁶⁾의 연구를 모태로 하여 중국어권의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발음상 어

4) 교육인적자원부(2006년11월24일)의 외국인 유학생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유학생 중 중국인(61.7%), 일본(11.4%), 미국(4.5%), 베트남(3.6%), 대만(2.9%)이며, 중국인 유학생 비율은 2001년 27.2%에서 2006년 61.7%로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5) 전나영(1993),이종은(1997),박시균(1998),정정덕(2000)은 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발음 지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6) 조성문(2000),전미순(2001)은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발음 지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면 취약점이 있으며 그 취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발음 지도에 관한 다양한 기법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어떤 단계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또한 발음 지도의 목적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들처럼 유창하게 구사하는데 있다면 음운 체계에 대한 학습이나 대조 분석만으로는 발음 지도에 큰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분절음과 초분절음의 통합 발음 교육을 모색하고자 한다. 초분절음은 모든 언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초급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에게는 그냥 지나치거나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장단과 억양 같은 초분절음소를 기초 단계에서 다지게 되면 학습자들의 이해나 의사전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의 발음 교육이 분절음 중심이었는데 최근 들어 의사소통 접근법이 발전되면서 초분절음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초분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개별 음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청자에게는 더 많은 어려움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분절음소적 요소를 갖고 있는 한국어의 장단과 억양을 성조를 가진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적절하게 지도를 한다면 자연스러운 발음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⁷⁾

그러므로 기존의 여러 논문에서 음운 체계에 대한 대조 분석의 이론적 방법만을 제시한 것과는 달리 기초 단계에 있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발음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단모음에서의 오류와 음절 구조로 인한 발음의 오류, 종성 폐쇄음/ㄱ, ㄷ, ㅂ/이 있을 때

7) 박해연(2004)에서는 초분절음소 발음 교육은 다른 언어 기능별 교육과 통합하여야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발생하는 오류, 중국어의 성조로 인한 발음 오류를 <음성 자료표>를 이용해서 청 지각 판단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청 지각 판단으로 인한 자료는 미세한 음의 위치나 높이에 대한 정확성은 다소 부족할지라도 일차적인 청 지각으로 음성의 정확성을 식별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차후에 음성학적인 실험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보다 과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이 초기 학습 단계부터 초분절음을 인식하여 한국어 발음을 보다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고 학습자 스스로 발음 교정을 해나갈 수 있는 지도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발음지도의 중요성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발음은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인 하나임에 틀림없다. 만약에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학습자들은 좌절감과 학습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습자들은 자신감을 잃은 채 한국인과의 대화를 기피하거나 한국어 학습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 발음이 부정확한 학습자들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의 발음이 화석화되기 전에 발음을 지도하여 바르게 발음하도록 도와주고, 자신감을 갖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 스

스로 자신의 발음을 점검하고 수정하여 발전해 나가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대규(1986)은 일반적으로 발음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발음 교육은 언어 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발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한국어 학습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데 있다고 정의하였다.

고경석(2002)는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는 목표어의 언어를 인식하여 상대방의 발음을 올바르게 알아듣고 또한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음성적으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음성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유신혜(2001)은 성인 학습자에게는 발음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올바른 발음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사는 발음 지도 교수법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시간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발음은 교육이 가능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여주었다.

한국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한국어의 음성체계를 이해하고 학습자의 모국어와의 음성체계에 대한 차이를 인식해서 한국인의 발음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또한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습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적절한 발음 지도를 받지 않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발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음성 언어를 위한 학습 전략의 기회를 갖지 못한 데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상대방의 말을 바르게 알아듣고 자신의 말을 음성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⁸⁾

8) 필자가 실시한(2005년9월) 한국어 교사의 인식 조사에 의하면 발음 지도가 어려운 이유로 발음 교재의 문제(40%), 발음 지도 이론 부족(33%), 발음 교육과

2.2 언어 교수법에 따른 발음 교육의 변천

언어 교수법에⁹⁾ 따라 발음 교육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도 다르다. 또한 언어학자들 간에도 발음 지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교수법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데 일어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고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학습 초기에 실행되어야 하는 발음 교육에 관해 논하고자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발음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박미경(1996)과 유신혜(2001)에서 언급한 언어 교수법에 따라 발음 지도 방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는 초기 학습에서의 발음 지도는 대단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다음에서 제시된 교수법의 장·단점을 수정·보완하여 한국어 교실 수업에서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면 초기 발음 훈련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습 단계에 따른 발음 교육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문법 번역식 교수법 (Grammar Translation Method)>

언어 교육의 주된 목표는 문법 및 독해에 있었기 때문에 문자 언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말하기와 같은 구두 언어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더욱이 발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문법이나 어휘에 비해 훨씬 미약하였다. 이 교수법은 아주 오랫동안 한국에서 영어를 학습하는데 사용되어왔던 교수법으로 교사 중심의 수동적인 교육 방법이다. 외국어를

정의 문제(27%)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발음 교육을 위한 교재의 필요성과 발음 교육을 하는데 있어 이론적인 지식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었다.(부록 3 참조)

9) 박미경(1996)에서는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다양한 언어 교수법 이론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상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번역하거나 독해하는 데는 유용한 방식이지만 의사소통 능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방법을 잘 활용하려면 초급이나 중급보다는 고급과정에 있는 학습자들에게 시사문제나 문학 작품 등을 학습 자료로 선정해서 수업을 진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직접 교수법 (Direct Method)>

구두 언어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어민과 같은 정확한 발음 습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이 교수법은 학습자들이 발음을 듣고 반복하고 따라 하면서 자연스러운 발음을 습득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습 초기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발화를 하기 전에 단지 듣기만 하도록 지도한다. 이후의 발음 지도 방법에 많은 영향을 주어 많은 외국어 교실에서의 발음 지도가 원어민이 녹음한 테이프를 듣고 따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방법은 지금도 국내에서 외국어 학습을 할 때 사용되고 있다. 한 교실의 학생 수가 많을 때나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들어야 할 때, 원어민이 아닌 자국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그리고 듣기 평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청각 구두 교수법 (Audio lingual Approach)>¹⁰⁾

이 단계는 유창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언어학습을 모방과 반복에 의한 습관 형성으로 보고 발음은 언어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각각의 소리나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도록 지도한다. 이 교수법은 발음 지도 방법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최소 대답어를 이용한 발

10) 박미경(2000)에서는 듣기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청각 기억과 음의 식별이 용이하며, 모방과 반복으로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한다.

음 연습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발음 교재에서 쓰이고 있다. 기계적인 문형 연습으로 단조롭고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초기의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는 유추나 창조보다도 문형 유형을 연습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 적용할 때는 교사가 학습 준비를 충분히 해서 지루하지 않은 수업이 되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침묵식 교수법 (Silent Way)>

목표어의 음과 구조 모두 정확한 발음을 내도록 강조한다. 교사는 말소리, 색깔 차트, 단어 차트와 색깔 막대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지도하는 방법이다. 듣기와 발음의 정확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발음에 관심을 갖고 발화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초기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에게는 자칫 심리적 부담감으로 수업 분위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교사가 시간을 갖고 학습자 스스로 발화할 때 까지 기다려준다면 부담감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 언어 학습 (Community Language Learning)>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에 중점을 두고 학습자가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발음을 정확히 하도록 지도한다. 이 방법은 국내에 있는 일부의 영어 교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의사만 전달이 되면 발음의 오류에 대해서는 그다지 지적하지 않았던 방식이다. 그런데 성인 학습자들이 아닌 경우에는 오류의 수정이 없는 지도는 오히려 반복되는 오류를 유발할 수도 있다.

<전신 반응법과 자연 교수 이론

(Physical Response and Natural Approach)>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 방법으로 고안되었다. 교사가 사용

하는 명령문을 통해 목표어의 문법 구조와 단어를 배우게 된다. 학습자에게 듣기 연습을 통해 목표어를 연습시키는 방법이다. 이 교수법은 일반적으로 기본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교사는 가르칠 내용을 잘 선택해야 한다. 언어 지도의 주안점이 문법 중심의 언어 형태보다는 의사 전달의 내용에 있기 때문에 초급의 성인 학습자들인 경우에는 심리적 부담감이 가중될 수도 있으나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 활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 언어교수 이론 (Communicative Approach)>

언어의 구조보다는 기능을,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을 강조하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 따라 언어 교육의 목적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라고 여겨지게 되었고 발음지도를 하는데 있어서도 이전의 정확한 발음 습득에서 이해 가능한 발음의 습득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학습자는 한국어의 문법이나 음운체계에 관한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 한국어의 특성상 정확한 발음을 하지 않게 되면 의사소통에 빈번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한국어의 특성을 잘 이해해서 평음, 격음, 경음의 발음을 정확하게 구사하도록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¹¹⁾

11) 중국인 학습자들은 중성/ㄱ/을 중성/ㅇ/으로 대치하여 발음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똑똑하다’는 표현을 ‘똥똥하다’로 사용하여 어휘의 뜻이 잘못 전달되기도 한다.

<표 1> 발음 교육의 변화 과정¹²⁾

단계	교수 이론	발음 지도	한계점과 개선 방안
1	문법 번역식 교수법	문자 언어 > 음성 언어	문법과 독해 위주의 수업 방식으로 발음 교육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 토론, 문학작품 이해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2	직접 교수법	듣기 강조	녹음테이프를 듣고 따라 하기 때문에 초기 학습자들에게는 정확한 입 모양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반복 연습과 듣기 평가에 활용이 용이하다.
3	청각 구두 교수법	발음의 중요성 강조	반복적인 문형 연습이 많다. 지나친 발음 오류의 수정으로 발화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교사의 적절한 오류 수정이 필요하다.
4	침묵식 교수법	유창성 < 정확성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요구로 부담감을 느낀다. 교사는 학습자가 스스로 발음한 소리에 대해 칭찬을 자주한다.

12) 유신혜(2001:재인용)에서는 언어 교수법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학습의 효과도 다르며 시대에 따라 발음 교육이 강조되기도 하고 무시되기도 하였다.

<표 1> 발음 교육의 변화 과정 - 계속

단계	교수 이론	발음 지도	한계점과 개선 방안
5	공동체 언어 교수법	유창성 > 정확성	기계적인 반복은 피하고 학습 내용을 학습자에게 맡긴다. 주체적인 활동과 학습동기가 중시되지만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며 교실 분위기 통제가 어렵다. 따라서 교사의 다양한 방식의 수업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6	전신 반응법과 자연 교수법	듣기 강조	기본 교재가 없으며 학습자가 발음할 수 있을 때 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성인 학습자보다는 아동 학습자들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다.
7	의사소통 언어 교수법	정확한 발음 < 이해 가능한 발음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유창성과 정확성 모두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담감은 있지만 학습 단계에 따라 적절한 비중을 두고 지도해야 한다.
8	통합 교수법	문자 언어 = 음성 언어	학습자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서 적절한 교수법을 선택해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 선택이 한 가지 방법만을 고를 필요는 없다. 학습 목표나 교수 내용에 따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3 발음 지도에 관한 선행 연구

전미순(2001)에서는 일본어 모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을 위해서 학습 초기 단계의 연습을 비롯하여 한국어를 배운 일본인 학습자들의 잘못된 발음을 교정할 수 있도록 초성, 중성, 종성에서의 조음 방법에 따라 학습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향숙(1998)에서는 멀티미디어 교육 매체를 이용한 한글 발음 원격 교육 시스템은 향후 계속 연구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에서의 초점은 지금은 영어권에 한정되어 있지만 전 세계의 언어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노향숙(1998:70)에서 제시한 <화면 7>의 연습 문제 풀이 화면 자료를 보면 ‘다음 중 한국어 단모음이 아닌 것은?’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성인 학습자에게는 성인에 맞는 문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면을 수정·보완한다면 학습자 주도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원격 교육 매체로 활용하기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노대규(1986)의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 있어 발음 교육의 효시로 보고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발음 교육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교육 범위와 내용 그리고 발음 교육의 단계와 방법, 발음 연습 유형을 제시 하였다. 교사가 한국어와 학습자의 모국어를 대조하여 그 차이점을 설명해 줌으로써, 학습자는 보다 쉽게 그리고 빨리 발음을 습득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발음 연습을 위해 반복해서 따라 읽기를 시키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음 설명을 위해 보조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오대환(1999)에서는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한 교수는 발음 교수에서 뿐만 아니라 문법 항목에서도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조어법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법 항목에도 접근해야만 하는 문제인데 이를 단순히 ‘나뉘
있’은 [나뉨닙]이라고 표기와 발음이 다르다고 하든지 혹은 과도한 이론적
인 설명을 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한국어 교사가
한국어 음운 규칙을 잘 이해하고 있다 해도 적절한 교수 지침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방법을 모른다면 지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또한 한 교실 수업에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교
수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

다음은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노금송(2000)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 체계에 대한 차이점과 유사
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분석을 통하여 지도 방안
을 제시했으며 중국어의 예문은 학습자 뿐 만 아니라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한국어 교사에게도 학습자의 언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문연희(2001)에서는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국어 발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발음 교수 방법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
히, 중국어에 없는 한국어 음소의 변별적 특성을 학습자들에게 가르침으로
써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음 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박진원(2001)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발음하는 한국어와 한국인 교사가 발
음하는 한국어의 음향 음성적인 특징을 스펙트로그래프(Spectrograph)를¹³⁾
이용해서 실험 음성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

13) 박진원(2001)에서는 스펙트로그래프는 1940년대 개발된 기기로 음성의 주파수,
시간, 강도 등을 측정해 주며 시간을 X축, 주파수를 Y로 하며, 각 시간에 따른
주파수의 강도를 명암의 정도로 표시하여 3차원의 그래프를 2차원의 그림인
스펙트로그램으로 보여주는 장치로서, 오늘날 실험 음성학에서 음향 특성 분석
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자료라고 하였다.

로 비교 분석을 하고, 대조 분석이론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발음 오류의 원인을 알아내며, 더 나아가 그 결과를 한국어 발음 교육에 연관시키고자 하였다.

이향(2002)은 양국 언어를 비교, 대조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오류를 예측해 보고, 실제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을 조사하여 그 오류를 분석하여 진위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존의 발음 교재의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교재가 중국어권 학습자의 발음 학습에 적합한지 여부를 알아본 후 그 적합성 여부에 따라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재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주행(2002)은 한국어 발음 교수법에 있어서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지도해야 한다고 한다. 제 1단계는 학습자가 목표 언어의 음운체계를 익히고 이해하는 것이고 제2단계는 통합 교수법에 따라 학습 내용을 익혀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양국 간의 음운 차이를 이해시키고 조음 방법과 위치, 입모양에 대한 지도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박해연(2004)은 중국인 학습자들의 발음을 녹음 조사하여 언어학적 대조 분석 및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험 음성학적 대조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학습자들의 발음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학습자들이 발음을 개선하고 보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음을 할 수 있도록 학습자 수준별 및 단계별 초분절 음소 발음 지도 내용과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김지혜(2004)는 중국어 학습자를 위해 음절 구조에 따른 종성 발음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인지 실험을 하였다. 실험 후 발음 수업을 위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논문들이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 대조와 비교에 중점을 둔 데 반해 본 연구에서의 수업 모형 제시는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를 학습하는데 있어 모국어의 간

섭으로 나타나는 비음을 인지하고 발화하는 것이 중성 폐쇄음 발음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 밝혔다.

전원해(2005)는 한·중자음 대조 및 중국 학생들의 실제 발음에서 나타나는 오류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중국 학생들이 한국어의 자음을 학습할 때 나타나는 오류와 원인은 '모어 간섭 현상'과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음운 규칙을 모를 때 그리고 한국어의 조음 위치와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곡향봉(2005)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분석을 통해 한국어 발음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음운체계 안에서 자음, 모음, 음절구조, 장단음 및 억양의 분화 조건에 따라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어와 중국어에 비슷한 음이 있다할 지라도 음운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인식을 갖고 지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소연(2006)은 중국인 학습자들의 발음 교육을 위하여 노래를 활용한 학습 도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또한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한국어 화자의 발음과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정확한 발음의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학미(2006)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단모음 비교 연구를 실험 음성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언어의 단모음 사이에는 서로 이질적인 단모음이 많지 않고 중국인 학습자가 배우지 못하는 한국어 단모음은 많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단모음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 혀의 조음위치를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각 언어권별로 논문들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 일본어, 영어, 중국어와 한국어의 음운 체계의 차이를 통한 대조 분석으로 이루어져있다.

최근의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음향 음성학적 분석¹⁴⁾에 의한 비교 분석이 늘어나면서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물로 한국어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발음 교육은 일차적인 음운 체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음운 체계를 잘 아는 것이 반드시 소리를 정확하게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보다 실제적인 사용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음성과 음운의 차이를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를 교수 학습하기 위한 실용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위의 대부분 논문들은 학습자의 능력이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문을 제시하였다. 자음과 모음의 학습에서는 어려운 어휘¹⁵⁾는 지양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일상에서도 잘 쓰이지 않는 어휘를 사용하거나 중급이나 고급 단계에서 나와야 하는 단어를 초급 단계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단순히 음운 규칙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접하는 외국인에게는 어휘로 인한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한국어 발음 교육에 관한 선행 자료를 검토·연구해서 문제점을 찾아 수정·보완한다면 앞으로 발음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방향과 지도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발음을 지도하는 방법은 학자들마다, 또는 교수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외국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과거의 단순하고 기계적인 반복 훈련에서 지금은 다양한 의사소통적 기법으로 바뀌고 있다. 즉, 발음 지도를 할 때, 플레

14) 박진원(2001), 이소연(2006), 학미(2006)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을 음향 음성학적 분석으로 연구했다.

15) 문연희(2001)에서는 모음을 연습 할 때 다음과 같은 어휘를 사용했다; 세상, 파괴, 죄인, 개고기, 귀동자, 보신탕, 공산당

쉬 카드를 사용하거나, 보드판을 이용해서 단어를 맞추어가는 방법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혼자 발음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들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느끼게 해준다. 이러한 방법은 설명만 듣고 이해한 내용을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음이 향상되고 향상된 발음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전나영(1993)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읽고 발음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모음과 자음의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음운변동에 의한 여러 가지 규칙도 익혀서 발음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듣거나 쓰기에서도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이종은(1997), 오대환(1999), 정정덕(2000)등에서 제시한 발음 지도 방법에 대해 장, 단점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향후의 발음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적극 활용하고 문제점들은 보완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함이다.

(1) 이종은(1997)의 발음 연습 지도

발음 교육은 음성(소리)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 청취 능력과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먼저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말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구별할 수 있는 ‘청취 지도’ 단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들은 말소리를 스스로 자신의 발음기관을 통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발음 연습 지도’ 단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래의 상관 음운 체계의 발음 교수 모형 (1)에서 (5)까지 제시한 발음 연습 모형을¹⁶⁾ 교사가 실제 발음을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를 함께 여러 번

16) 상관 음운 체계의 발음 교수 모형:

/ㅂ, ㅃ, ㅍ/	(평)균적으로 된 물에는 (병)균이 많으므로 약을 (뿌)린다.
/ㄷ, ㄸ, ㅌ/	(대)장은 (땃)목을 타고 (태)평양을 건넜다.
/ㅈ, ㅉ, ㅊ/	(줄)넘기를 하고 나니 배가 (출)출해서 (쫄)면을 먹었다.
/ㄱ, ㅋ, ㆁ/	이 (근)방에 있는 저 (큰)나무에 (끈)을 매달자.

반복 제시해서, 발음 연습을 반복적으로 시킨 다음, 학습자의 발음도 녹음해서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한국어 학습자들은 발음 훈련에 글자와 음소가 동일한 음성을 가지고 동류 별 단어를 통하여 나열하거나 실제의 소리를 듣고 발음을 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1)에서 (5)까지 제시한 상관 음운 체계의 모형에서는 연습하는 발음 이외의 단어들이 어렵고 아직 배우지 않은 난이도가 높은 어휘들이 선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전체 문장을 보면 의미의 수준은 중급 학습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형을 기초단계에서 사용할 때는 전체 문장을 수준별로 고려해서 만들어 이용하면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의 발음을 녹음해서 듣는 것은 개별 수업에서는 가능하지만 집단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녹음 후에 학습자들의 발음을 확인하는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2) 오대환(1999)의 발음 지도 순서

발음 지도법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한 가지는 초급에서 발음이 무엇인지 처음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소리의 청취와 인식, 그리고 올바른 조음을 교수의 주 내용으로 삼고 있는 ‘소리의 제시’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발달 과정 안에서 중간언어 상태에 있는 학습자의 발음을 개선하려는 ‘발음의 교정’으로 좀 더 모국어 화자의 발음과 유사하게 학습자의 발음을 수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제시 순서>

- 1) 단모음 10개
- 2) 음절 첫소리인 자음 19개

/ㅅ, ㅆ/	(쌀)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쯤다.
--------	-----------------------

- 3) 이중모음 13개와 이중 모음과 음절 첫소리의 조합
- 4) 음절말 자음 7개
- 5) 음절말 자음군

이 제시 순서는 한국어 수업에 적용하기에 무리 없으나 이 연구에서 강조한 목표어의 음운 체계에 대한 교수가 아닌 실제 음의 실현을 돕는 교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음 교육을 하는데 있어 조음 기관의 근육 운동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여 아쉽다.

(3) 정정덕(2000)의 발음 연습 모델

정정덕(2000)에서는 언어권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사는 많은 외국어를 알아야 하고, 특히 학습자의 모국어를 알아야 하며, 기초적 발음지도에서 한국어와 학습자 모국어의 모음 체계와의 공통점과 차이점(변별자질)을 비교 설명할 수 있어야 효과적인 발음 지도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국어 교사에 대한 기대 사항은 차후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학습자들이 성인들 입을 감안할 때, 정확한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우우, 오오오, 이우오, 우오이, 오우이”와 같은 방법은 발음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발성 연습으로 입 모양과 혀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위한 준비 운동으로서 사용되는 것이지 발음 자체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종은(1997), 정정덕(2000)은 효과적인 발음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음운 체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음운 변화의 규칙을 모르면 외국인 학습자들이 글자를 한자씩 끊어서 발음하기 때문에 부자연스럽

고 발음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다양한 음운 변화에 따른 발음 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효과적인 발음 훈련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 오대환(1999)은 발음 교수에서 주요 교수 항목으로 여겨지던 음운 체계보다는 개개 음운의 소리 내는 법을 더 중요시했다. 발음은 음성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데 필요한 미세한 근육 운동이나 혀의 움직임이 반드시 요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만 이러한 방법은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초급 학습자들에게는 가능하지만 이미 모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후에 유학 온 성인 학습자들에게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자연스러운 발화를 돕기 위해서 발음 오류의 유형을 각각 분석을 해서 적절한 지도 방안을 찾고자 한다.

한국어 교육보다 훨씬 앞서 연구된 영어 발음 지도 방법들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보다 나은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영어 지도법도 초기에는 영어 학습과 발음 교육을 별개로 두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발음 교육은 유창성 중심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실제적인 발음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초기 학습에 있어서는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중급, 고급 단계로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유창성과 정확성을 강조하여 적절히 지도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학습 과정을 전개 시키면 효율적인 학습 방안이 될 것이다.

더불어 발음 교육의 어휘도 난이도에 따라서 쉬운 어휘에서 차차 고급 어휘로 수준을 높여야 하며 각 단계별로 발음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해 양국 간의 단모음 체계를 살펴보고 중국인 학습자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단모음과 발음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찾아내어 발음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할 것이다.

3. 발음 오류의 원인과 분석

3.1 단모음 체계의 차이¹⁷⁾로 인한 발음 오류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의 단모음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오류를 알아보자 한다. 초성 자음이 포함되지 않은 한국어 단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ㅑ, ㅓ/ 8개를 청 지각에 의해 조사한 것이다. 조사 대상자들은 부산동의 과학 대학에 유학 온 20대 초반의 중국 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대상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A집단은 2학년(12명)들로 중국에서 1, 2년 정도 한국어 학습을 한 경력이 있으며 본교에서 학습한 지 1년 반이 경과했기 때문에 입학 처음부터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었던 까닭으로 한국어 발음 교육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지 않았

17) 이호영(1996)에서의 <한국어 단모음 분류표>

혀의 위치 혀의 높이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비원순	원순	비원순	원순	비원순	원순
고모음	ㅣ [i]	ㅑ [y]			ㅓ [ɯ]	ㅕ [u]
중고모음	ㅓ [e]	ㅑ [ø]	ㅓ : [ə:]			ㅓ [o]
중저모음	ㅐ [ɛ]					
저모음			ㅏ [a]		ㅑ [ʌ]	

이동훈·김충실(2005)에서의 <중국어 단모음 분류표>

혀의 위치 입술모양 혀의 높이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비원순	원순	비원순	원순	비원순	원순
고모음	i[i]	ü[y]				u[u]
중고모음	e[e]				e[ɤ]	o[o]
중모음			e[ə]			
중저모음	ɛ[ɛ]					
저모음	a[a]		a[ʌ]			a[a]

다. B집단은 1학년(13명)으로 2006년 9월에 입학해서 한국에 온 지 두 달 정도 되었으며 중국에서는 1주일에서 두 달 정도의 학습 경험을 갖고 있다. B집단은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면서부터 체계적인 발음 교육을 받고 있는 학습자들이며 자모음의 발음 교육이 끝난 학습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A집단과는 달리 B집단은 의도적으로 2차시와 3차시에 단모음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단모음 발음 오류 실태와 한국어 학습기간과 발음 상태의 상관관계 즉, 한국어 학습 초기에 발음 교육을 받은 학습자와 적절한 발음 교육을 받지 않은 학습자들의 발음 정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 대상자 구성>

학습 기관	부산동의 과학 대학	
연령	19살 - 22살	
학습 기간	A집단(12명)	1년 6개월
	B집단(13명)	2개월
발음 교육의 유무	A집단	무
	B집단	유
실시일	2006년 11월 15일/16일/17일 (3일간)	

<중국인 학습자의 단모음 오류 1차시>

A 집단: ㄱ (7) > ㅎ (5) > ㅡ (4) > ㄴ (2) > ㅌ (1) > ㄹ (1) > ㅓ (0) > ㅣ (0)

B 집단: ㅌ (9) > ㅡ (7) > ㄴ (6) > ㄹ (5) > ㄱ (4), ㅎ (4) > ㅓ (1) > ㅣ (0)

A 집단 집단의 결과를 분석하면 /ㅎ/와 /ㄱ/의 발음 오류가 상대적으로 다른 모음에 비해 많았는데 이것은 1년 넘게 한국에 생활하면서 그다지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으로 본다.¹⁸⁾ 학습자들이 발음의 오류로 의사

소통이 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수정을 하려고 하지만 상대방이 대략 알아듣게 되면 수정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다. 또한 /-/도 오류가 나오고 있지만 지적을 받게 되면 의도적으로 다시 발음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B집단의 경우는 아직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이 되지 않아 /ㅏ/, /ㅣ/를 제외하고는 발음상의 오류를 보였다.

이러한 원인은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 체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 기인하고 있다. 둘째, 정확한 조음 방법을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셋째, 모국어의 언어 습관상 입 모양을 크게 움직이지 않으려는 경향도 한 몫 차지하는 것으로 보였다.¹⁹⁾ 이러한 오류를 보이는 단모음들은 집중적인 반복 훈련으로 습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4장에서 입 모양과 혀의 위치를 이용한 지도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의 단모음 오류 2차시>

A 집단: ㅞ(5) > ㅟ(5) > ㅡ(4) > ㅓ(1) > ㅜ(0) > ㅛ(0) > ㅜ(0) > ㅣ(0)

B 집단: ㅜ(7) > ㅡ(5) > ㅓ(5) > ㅛ(3) > ㅞ(3) > ㅟ(2) > ㅜ(0) > ㅣ(0)

<중국인 학습자의 단모음 오류 3차시>

A 집단: ㅡ(5) > ㅞ(4) > ㅟ(4) > ㅓ(1) > ㅜ(0) > ㅛ(0) > ㅜ(0) > ㅣ(0)

B 집단: ㅜ(4) > ㅡ(3) > ㅓ(2) > ㅛ(1), ㅞ(1), ㅟ(1) > ㅜ(0) > ㅣ(0)

18) 박진원(2001)에서는 스펙트로그래프를 이용한 음향 음성학적 분석에 의하면 모음/에/와 /애/는 음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므로 음운대립이 무디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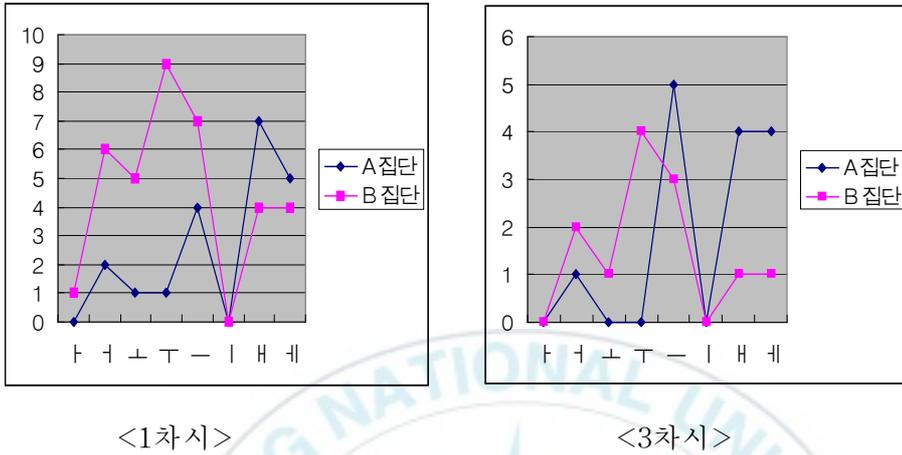
19) 최윤환(1995)에서는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발음 오류도 소리가 나는 자리와 그에 따른 훈련과 음성 기관 및 원리의 지도가 체계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1차시에 비해서 2차시와 3차시에 두 집단 모두 오류가 줄었다. 그러나 A집단과 B집단을 비교해 보면 3일은 오류를 조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의도적인 발음 연습을 한 B집단의 경우가 오류의 감소율이 높았다. 또한 A집단의 경우는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으나 여전히 /ㅡ/, /ㄱ/, /ㄴ/와 같은 단모음에서는 오류가 줄어들지 않았다. 이 실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의 단모음 발음 오류 실태 분석>

위의 단모음 오류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발음하기 쉬운 한국어 단모음으로는 /ㅣ/, /ㅏ/, /ㅑ/를 들 수 있으며 /ㅓ/, /ㅕ/, /ㅗ/, /ㅛ/, /ㅜ/는 집중적인 발음 교육이 필요한 단모음으로 간주된다. 단모음의 발음 교육은 음운 체계에 대한 지식만으로 부족하다. 배우고 익히는 데에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ㅣ/, /ㅏ/, /ㅑ/도 다른 단모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음하기 쉬운 단모음이지 학습의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슷하다는 이유로 발음 교육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중국어와 한국어는 음소의 위치가 정확히 대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4장에서는 한국어를 소리 낼 때의 입 모양과 혀의 움직임을 통해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발음하기 쉬운 지도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표 2> 학습 기간과 발음 상태와의 상관관계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기간과 발음 상태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면 학습 기간보다는 한국어 초기 학습에서 발음 교육을 적절하게 받은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발음의 오류 수정이 빠르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어가 유창히 하다고 발음 교육이 필요 없을 거라는 예측이 빗나간 결과이다. 한국어를 얼마나 학습했는가보다는 초기 한국어 학습에서 발음 교육을 적절하게 받았는지의 여부가 발음의 정확성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한국어 수업 진행에 앞서 학습자들의 한국어에 대한 기초 인식조사와 발음에 대한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학습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집단의 학습자들 중 50%가 발음 교정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부록2 참조) 이러한 학습자들의 요구 분석을 토대로 이해가능하고 습득할 수 있는 한국어 발음 교육 수업이 되고자 한다.

3.2 음절 구조의 차이로 인한 발음 오류

3.2.1 한국어의 음절 구조

한국어의 음절은²⁰⁾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음절의 중심이 되는 모음을 음절 핵음이라고 하며 핵음 앞의 자음을 초성, 뒤의 자음을 종성이라고 한다. 한국어에서는 음절 핵음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초성과 종성의 유무는 자유롭다. 따라서 한국어의 음절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설명된다.

<표 3> 한국어의 음절 구조 유형

구분	기저형	표면형
1	V: 아, 어, 오, 우	V: [아],[어],[오],[우]
2	C+V: 가, 거, 고, 구	C+V:[가],[거],[고],[구]
3	V+C: 약, 억, 옥, 옥	V+C: [약],[억],[옥],[옥]
	V+C+C: 앓, 엓, 읍, 읍	[안],[업],[음],[일]
4	C+V+C: 각, 격, 곡, 국	C+V+C:[각],[격],[곡],[국]
	C+V+C+C: 닭, 굽, 많, 많	[닥],[굽],[만]

이러한 규칙으로 만들어진 한국어의 음절은 이론상으로는 음절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음절도 많이 있다.²¹⁾ 그러나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의 구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시켜 학습자 스스로가 음절을 인식하면서 발화 연습 차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20) 임수희(2003)에서는 한국어의 음절 구조의 제약은 초성에는 대체로 19자음이 올 수 있으며, 중성에는 10개의 단모음과 12개의 이중모음, 종성에는 7개의 자음만이 올 수 있다고 하였다.

21) 각, 장, 격, 절, 곡, 굴 등이 있다.

3.2.2 중국어의 음절 구조

이현복, 심소희(1999)는 중국어도 다른 언어와 같이 네 가지 기본 유형의 음절 구조로 갖추어져 있으나 이 네 가지 유형이 확장 될 때는 매우 엄격한 제약이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어의 전체적인 음절 구조는 이 네 가지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²²⁾ 그러나 전통적으로 중국어의 한 음절은 성모와 운모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조가 있다. 음절의 첫 부분을 ‘성모’라고 하고 뒷부분을 ‘운모’라고 한다. 즉, 중국어의 음절 처음에 C-가 있으면 C를 성모라고 하고 C-뒤에 몇 개의 구성성분이 있건 모두 운모에 속한다.²³⁾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음절 구조 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표 4> 중국어의 음절 구조 유형²⁴⁾

	음절구조	형태
1	모음(V)	啊 [a]
2	자음+모음(C+V)	你 [ni]

22) <중국어의 음절 구조 1>

구분	음절구조	형태
1	모음(V)	啊 [a]
2	자음+모음(C+V)	你 [ni]
3	모음+자음(V+C)	安 [an]
4	자음+모음+자음(C+V+C)	您 [nin]

23) <성모와 운모 방식의 음절 구조 2>

성모	운모		
	운두	운복	운미
(C)	+	(V)	V (V, N, P)

24) 이현복, 심소희(1999)에서는 모음+자음(V+C), 安[an]과 자음+모음+자음 (C+V+C), 您[nin]의 두 가지 형태를 포함시키게 되면 엄격한 제약이 따르며 폐음절의 자음 C는 반드시 비음이나 폐쇄음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도 지역에 따라 나타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한다.

3.2.3 음절 구조로 인한 발음 오류

김형복(2006)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정확한 발음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음절과 음절의 경계에 대한 인식과 그 음운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어의 음절 구조의 유형에 따르면 ‘한국어의 음절 구조’ V와 C+V는 문자와 발화의 형태가 같으므로 학습자들이 발음을 익히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그러나 V+C와 C+V+C의 경우는 음절과 음절의 경계에서 연음이나 소리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발음 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음절 구조에서는 V+C와 C+V+C의 경우는 /n/과 /ng/만 있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종성이 있는 폐음절을 발음할 때 많은 오류를 나타내고 있다.

<표 5> 음절 구조로 인한 발음 오류 실태²⁵⁾

발음 오류	A집단(12명)	B집단(13명)
먹다; [머타]	2	10
선생님: [선새니무]	1	5
학교: [하교]	1	9
읍니다: [읍다]	0	2
운동: [원동]	3	7
식당: [시당]/[스당]	3	11
은행: [언헨]	8	12
등산: [덩산]	7	11
합니다: [하니다]	0	8
책상: [채상]	1	9

25) 실제 수업에서 서울대 <한국어 1>에 수록된 어휘 중 사용 빈도수가 높은 것을 선택한 것이다.

A집단의 경우에는 B집단과는 달리 어휘에서 그다지 발음의 오류를 보이지는 않았다. B집단의 학습자들은 어휘에서 60%이상의 오류를 보여 주었다. 중국어에는 평음과 격음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특성인 삼지적 상관속의 개념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음과 격음에 대한 혼돈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종성을 탈락시켜 발음하기도 하며 중국어에 있는 유사한 발음으로 대치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어의 받침(종성)은 모두 27개가 있지만 대표음으로 7개/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 종성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종성으로 사용된 /ㄱ, ㄴ, ㅂ, ㅇ/이 들어간 어휘에는 특히 발음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한국어의 받침으로 오는 자음들은 뒤에 모음이 없으면 내과가 된다. 또한 중국어의 경우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폐쇄 자음인 /ㄱ, ㄷ, ㅂ/의 발음에 어려움이 따른다. /ㅇ/의 경우에는 중국어에 비슷한 /ng/이 있음에도 오류를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ㅇ/을 발음 할 때 혀뿌리를 연구개에 대지 못하고 모국어의 개입으로 인해 윗몸이나 경구개에 대이면서 나타나는 오류이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혀나 입 모양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아서 발음의 장애가 생겼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보여주는 음절 구조에 대한 오류를 두 가지로 분석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직 학습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 음절 구조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성과 중성 또는 중성과 종성이 결합된 어휘의 발음 차이를 학습자 스스로 소리를 인지하고 반복 연습하여 발화함으로써 현실적인 발음을 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발음 오류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4장에서는 이러한 발음의 오류에 대해 음철법으로 지도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3.3 종성 폐쇄음으로 인한 발음 오류

3.3.1 한국어의 종성 폐쇄음

폐쇄음의 발생 과정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공기의 흐름이 차단되는 밀폐 상태, 밀폐 상태가 지속되는 지속 상태, 그리고 압축되었던 공기가 배출 또는 과열되는 과열 상태이다. 그러나 폐쇄음이 음절의 종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이 세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배출 또는 과열 단계가 생략된다. 그래서 초성으로 사용되는 폐쇄음을 외파음, 종성으로 사용되는 폐쇄음을 내파음이라고 한다. 한국어 음절 형태에서 최대형은 CVCC 구조이다. 이 구조의 형태는 기저형태는 ‘넓다’, ‘맑다’로 CVCC형 이지만 발음상의 표면 형태는 /널따/, /발따/로 CVC형이 된다. 이미 3.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 음절의 종성이 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과 같이 대표음이 7개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ㄱ, ㄷ, ㅂ/이 음절 말음에서 종성으로 소리가 날 때 무성 폐쇄음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종성 폐쇄음이 중국인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적합한 발음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3.2 중국어의 종성 폐쇄음

중국어에는 과열음이 음절 끝에 오지 않는다. 한국어의 종성에 해당되는 소리는 /n/과 /ng/두 개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종성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종성 발음을 할 때 /ㄴ/과 /ㅇ/은 중국어의 종성과 유사한 소리를 내지만 나머지 소리들에 대해서는 어려워

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떤 학습자들의 경우는 앞 음절의 종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²⁶⁾

따라서 기본 단모음 발음 상태와 단모음과 종성의 결합에서 어떻게 발화가 되는지를 알아보고 수용 가능한 지도 방안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음절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음성학적인 현상은 다루지 않는다.

3.3.3 종성 폐쇄음의 발음 오류

중국어에는 종성으로 발음할 수 있는 자음이 비음인 /ㄴ/과 /ㅇ/밖에 없어서 한국어의 종성을 발음 할 때 탈락시키거나 또는 부정확하게 발음을 하며 중국어의 비음으로 대치해서 발음하거나 /ㄴ/과 /ㅇ/의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이²⁷⁾ 한국어의 단모음과 종성 폐쇄음이 있는 발음을 할 때 일어나는 오류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음성 자료표>를 작성해서 이에 따라 청 지각에 의한 조사를 했다. 즉, 본 연구에서는 단모음 8개의 발음 실태와 종성 폐쇄음 /ㄱ, ㄷ, ㅂ/에 대한 발음 실태를 살펴보았다.

26) 안녕하세요?에서 [안녕하십니까?]나 [안녕하십니까?]로 종성이 생략되거나 음절의 종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인지와 생성에 있어서 모두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 조사 대상자들은 3.1장에서 실시한 동일한 학습자들로 구성되었다.

<음성 자료표>²⁸⁾에는 초성의 자음은 포함시키지 않은 단모음이 들어간 중성 폐쇄음 /ㄱ, ㄷ, ㅂ/과 결합했을 때의 발음 오류 실태를 살펴본 것이다.

실험 방법은 <음성 자료표>를 토대로 초성에 자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단모음과 연결된 중성 폐쇄음이 있는 단어를 학습자들에게 읽게 한다. A집단의 경우에는 3일 동안 아무런 지시 없이 그냥 읽게 하였다. B집단의 경우에는 1차시를 제외하고 2차시와 3차시는 이미 학습한 발음 자료를 주어 읽어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것은 A집단과 B집단의 연습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다.

<표 6> 청지각 판단 자료

1	악	억	옥	욱	옥	익	액	억
2	안	연	온	운	은	인	엔	언
3	압	업	옴	움	옴	입	엎	업

A집단에서는 /옥/(5), /옥/(6), /옥/(7), /억/(6)과 B집단에서는 /옥/(5), /옥/(8), /옥/(7), /억/(6)로 모두 /옥/, /옥/, /옥/, /억/에서 각각 50%이상의 오류가 나타났다. 이것은 단모음 /ㄱ/, /ㄷ/, /ㅂ/의 오류가 중성 발음 오류에까지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A집단의 경우에는 3일 동안 오류의 빈도수에 변동이 없었다. B집단에서 2차시에는 /ㄷ/(7)와 /ㅂ/(6)에 오류를 보여주었다. 3차시에는 /ㅂ/(4)에만 오류를 보여주었다. 이들 동안의

28) <음성 자료표>

	ㄱ	ㄷ	ㄴ	ㄷ	ㅂ	ㅌ	ㅈ	ㅊ
ㄱ	악	억	옥	욱	옥	익	액	억
ㄷ	안	연	온	운	은	인	엔	언
ㅂ	압	업	옴	움	옴	입	엎	업
ㄴ	안	언	온	운	은	인	엔	언
ㅌ	압	업	옴	움	옴	입	엎	업
ㅈ	알	얼	올	울	올	일	엘	언
ㅊ	앙	엩	옹	웅	옹	잉	엩	엩

의도적인 연습으로 발음의 오류는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표 6> 청지각 판단 자료 (3)의 경우를 보면 음절 하나씩은 오류가 없었지만 어휘에서 오류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읍/한 음절은 정확한 발음을 하면서도 /읍니다/는 /읍니다/나 /오니다/로 발음을 하였다.

A집단에서는 /은/(7), /운/(6), /엔/(5), /인/(4)과 B집단에서는 /안/(5), /운/(8), /은/(9), /엔/(6), /엔/(9)에서 오류가 보였다. 이것도 역시 단모음 /개/, /ㄱ/, /-/, /ㅏ/, /ㅓ/의 오류가 종성 발음에까지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2차시에는 A집단은 /은/(7), /운/(5), /엔/(3), /인/(3)과 B집단에서는 /안/(3), /운/(7), /은/(8), /엔/(4), /엔/(7)을 나타냈으며 3차시에는 A집단에서는 /은/(5), /운/(6), /엔/(3), /인/(3)과 B집단에서는 /안/(2), /운/(4), /은/(8), /엔/(4), /엔/(5), /운/(1)으로 나왔다.

A집단은 /읍/(3), /읍/(5), /엎/(6)으로 대체로 /ㅂ/종성에서는 발음의 오류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오류가 적게 나왔는데 이는 한 음절만 발음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B집단에서는 /압/(5), /읍/(7), /읍/(6), /읍/(8), /엎/(3)으로 나왔다. 2차시에는 A집단은 /읍/(3), /읍/(3), /엎/(4), B집단은 /압/(3), /읍/(4), /읍/(5), /읍/(5), /엎/(1)으로 나왔다. 3차시에서 A집단은 /읍/(1), /읍/(3), /엎/(2), B집단은 /읍/(2), /읍/(3), /읍/(4), 으로 결과가 나왔다.

위와 같이 나타난 발음의 오류 원인은 첫째, 한국어의 종성에 위치한 소리는 구강 중앙부를 완전히 폐쇄한 채로 발음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폐쇄음의 발음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소리 구조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둘째, 두 집단을 비교해보면 종성 폐쇄음에 대해서는 그다지 차

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학습의 기간이 종성 폐쇄음의 발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²⁹⁾ 셋째, 한국어의 /ㄴ/는 중국어의 /n/[ŋ]보다 발음 위치가 앞서는데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오]를 [오우]로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모국어의 관습으로 인한 발음의 오류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청 지각 판단 조사에 의한 분석을 보면 단모음과 종성 폐쇄음에서의 발음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단모음에서의 부적절한 발음은 종성이 포함된 단어에서도 여전히 오류를 보여 주었다. A집단과 같이 학습 초기에 적절한 발음을 교육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어 수업을 받은 경우 중급이상의 단계에서도 의사소통에 유창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학습 초기에 보여 지는 중국인 화자로서 가지고 있는 발음상의 오류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B집단의 경우는 3일 간에 걸쳐 반복 학습한 결과 오류의 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3일이라는 단기간과 조사 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아 모든 학습자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 충분한 자료가 되기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연구자의 교육 기관에는³⁰⁾ 많은 도움을 주리라 예상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이미 3.1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발음의 정확성은 학습의 기간보다는 학습의 상태³¹⁾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학습의 기간이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발음 교육을 학습 초기에 받지 못하게 되면 발음의 정확성을 교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어려워짐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므로 발음의 정확성은 학습 초기에 반드시 습득해야 하며 학습이 진행되는 전 과정에 실시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 기간과 발음 상태의 상관관계 보다는 체계적인 발음

29) 이러한 결과는 김지혜(2004)에서 음성 실험을 통해 보여준 종성 발음 능력과 한국어 실력은 무관하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보였다.

30) 실험 대상자들은 현재 부산동의 과학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다.

31) 여기서 말하는 학습의 상태란 적절한 발음 교육을 받았거나 발음 교육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교육을 받은 학습자와 발음 교육을 받지 않은 학습자와의 상관관계가 더 크다고 해석되어진다. 또한 중성 폐쇄음을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단모음 학습의 필요성을 보여 준 것이다. 초기 학습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지는 단모음 학습을 제대로 하면 중성 폐쇄음의 발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어휘와 문장 속에서의 발음은 음운 규칙과 변화에 대한 이론적인 학습을 통해서 익히면 되는 것이다.

3.4 중국어 성조³²⁾로 인한 발음 오류

맹주억(1999)에서는 중국어의 운율적 요소 중 성조는 음운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의 발음이란 분절음과 성조를 포함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성조³³⁾의 성질은 주로 음높이에 의해 결정되며 발음 할 때, 성대를 긴장 시키면 높은 음이 발음되어 나오고, 성대를 느슨하게 하면 낮은 음이 발음되어 나온다.³⁴⁾ 따라서 중국어의 성조는 한국어에서 모음의 길이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경우와 같다.

32) 성조란 음의 높고 낮음을 말한다. 중국어에는 4개의 성조가 있는데 각각 1성, 2성, 3성, 4성과 같은 성조 부호로 표시한다.(mā 媽 엄마 / má 麻 마 / mǎ 馬 말 / mà 罵 욕하다)

33) 광수경(2003)에서는 중국어의 음절은 성모와 운모 그리고 성조의 3가지 요소가 함께 결합하여 이루어지는데, 21개의 성모와 38개의 운모가 결합하여 구성된 음의 수는 대략 410개가 되며 여기에 4개의 성조가 결합하면 이론적으로는 1,600 여 개의 음절이 존재해야 하지만 실제로 4성이 다 갖추어지지 않은 음절도 있기 때문에 약 1,200여 개의 음절이 탄생하게 된다고 한다.

34) 한승애(2003)에서는 대부분의 언어는 성조언어와 비성조 언어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비성조 언어에서는 음높이의 변화는 단지 억양의 변화만을 나타내지만 성조 언어는 음높이의 변화가 의미를 변별하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중국어에서는 음의 높이나 길이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의미를 구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절의 의미를 변별하는 음높이인 성조는 자음, 모음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예들에서 음의 높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성조를 가진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발음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보이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문제이다. 성조로 인한 중국인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영향이 나타난다.

<표 7> 성조에 의한 의미의 차이

	1성	2성	3성	4성
<i>1</i>	<i>mā</i>	<i>má</i>	<i>mǎ</i>	<i>mà</i>
<i>ma</i>	媽 엄마	嗎의문조사 麻 삼, 마	馬 말	罵 욕하다
<i>2</i>	<i>yān</i>	<i>yán</i>	<i>yǎn</i>	<i>yàn</i>
<i>yan</i>	烟 연기	言 말(하다)	眼 눈	厭 미워하다
<i>3</i>	<i>yōu</i>	<i>yóu</i>	<i>yǒu</i>	<i>yòu</i>
<i>you</i>	优 우수하다	油 기름	有 있다	又 또
<i>4</i>	<i>qī</i>	<i>qí</i>	<i>qǐ</i>	<i>qì</i>
<i>qi</i>	七 일곱, 칠	奇 기이하다	乞 구걸하다	气 가스

<성조로 인한 발음 오류 양상>

- 1) 평음: 성조의³⁵⁾ 영향으로 경음으로 소리 낸다.--> 바다 [빠다]
- 2) 경음: 후두의 긴장에 성조의 3성(상성)을 첨가해서 발음을 한다.
--> 바빠요 [바바요], 볼까요 [볼가요]
- 3) 격음: 강한 유기성에 성조의 4성(거성)을 첨가해서 발음을 한다.
--> 파도 [파\도]
- 4) 문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음절에 2성(양평)을 넣어서 발음을 한다.
-->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까?→]

한국어의 무기 파열음 /ㄱ, ㄷ, ㅃ/과 중국어의 무기 파열음이 /g, d, b/ 이 음가상으로 유사하고, 한국어의 유기 파열음 /ㅋ, ㅌ, ㅍ/은 중국어의 유기 파열음 /k, t, p/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학습자들은 성조의 영향으로 정확한 발음을 내는 데 어려워하고 있다. 이에 경음과 격음의 혼동이 자주 일어나며 대부분 4)에서처럼 성조를 대입해서 발음 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박진원(2001)에서는 한국어의 평음은 중국어의 상성으로, 경음은 거성으로, 격음은 음평으로 발음 지도를 한다고 하였다. 이는 한국어의 음의 높이가 평음<경음<격음 순으로 중국어의 음 높이인 상성<거성<음평과 대응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조의 음 높이의 변화는 음의 길이와 세기에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조를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면 음의 길이는 거성<상성<양평<음평 순이 된다. 또한 종성 폐쇄 자음의 경우를 보면 불파음 [ㅂ]은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ㅁ]으로 바뀌게 된다.(예:밥+만 [밤만])

35) 이현복(1999)에서는 표준 중국어 성조값은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성(음평)[55], 2성(양평)[35], 3성(상성)[214], 4성(거성)[514]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불과음화는 음절말에서 평음, 경음, 격음의 구분을 없애고 다른 조음 위치의 자음까지도 같은 소리가 나게 한다.(예:부억 [부억]) 이러한 음운변동에 근거해서 볼 때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어두 폐쇄음의 발음에 성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평음, 경음, 격음의 음 높이를 대응하는 것은 과도한 대입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조를 가진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의 장단과 억양을 적용해서 초기 한국어 발음 교육 단계에서도 자연스러운 발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 발음 지도 방안

3장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발음의 오류는 대부분 음소 체계의 차이, 음절 구조에 의한 차이, 종성 폐쇄음으로 인한 차이 그리고 중국어가 가지고 있는 성조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최근의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이 진행 되면서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발음이 틀리면 어휘가 달라지고 문법도 달라진다. 특히 한국어에서는 의미의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의사소통 자체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확한 발음의 습관을 갖는 것은 한국어 학습을 하는데 있어 우선순위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지닌 특성과 오류를 통해서 초기 학습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발음 교육에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한국어 교실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4.1 입 모양과 혀의 움직임에 이용한 발음 지도

3.1장에서 실시한 중국인 학습자들의 단모음 오류 실태를 통해서 발음 지도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표 7>에서 보듯이 두 집단 모두 단모음 /ㅏ/, /ㅣ/의 오류는 보이지 않았다. A집단에서는 /ㅓ/, /ㅜ/에서 오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음성 자료표>를 사용해 실시한 결과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한국어 단모음 /ㅕ/, /ㅖ/, /ㅗ/, /ㅛ/, /ㅜ/, /ㅠ/, /ㅡ/에 대한 집중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표 8> 중국인 학습자의 단모음 오류 실태

	분류	단모음 오류
1차시	A집단	ㅕ(7) > ㅖ(5) > ㅗ(4) > ㅛ(2) > ㅜ(1) > ㅠ(1) > ㅡ(1) > ㅏ(0) > ㅣ(0)
	B집단	ㅓ(9) > ㅜ(7) > ㅛ(6) > ㅕ(5) > ㅖ(4), ㅗ(4) > ㅏ(1) > ㅣ(0)
2차시	A집단	ㅕ(5) > ㅖ(5) > ㅗ(4) > ㅛ(1) > ㅜ(0) > ㅠ(0) > ㅡ(0) > ㅏ(0) > ㅣ(0)
	B집단	ㅓ(7) > ㅜ(5) > ㅛ(5) > ㅕ(3) > ㅖ(3) > ㅗ(2) > ㅏ(0) > ㅣ(0)
3차시	A집단	ㅕ(5) > ㅖ(4) > ㅗ(4) > ㅛ(1) > ㅜ(0) > ㅠ(0) > ㅡ(0) > ㅏ(0) > ㅣ(0)
	B집단	ㅓ(4) > ㅜ(3) > ㅛ(2) > ㅕ(1), ㅖ(1), ㅗ(1) > ㅏ(0) > ㅣ(0)

1) /ɨ/

	단모음	국제음성기호	실제발음
한국어	/ɨ/	[ə] / [ʌ]	[어]
중국어	/e /	[ɤ] / [ə]	[으어] / [어]

각 차시에 따라 A집단에서는 /ɨ/(2), /ɨ/(1), /ɨ/(1), B집단에서는 /ɨ/(6), /ɨ/(5), /ɨ/(2)로 단모음 /ɨ/에서의 오류가 가장 많았는데 A집단에서의 오류는 평균 1명이지만 오류의 수정이 보이지 않았고 B집단에는 차시에 따른 오류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발음 교육의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모음 /ɨ/에 대한 지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두 언어에서 음소의 분포 위치가 다르므로 해서 발생한 오류이다.³⁶⁾ 한국어의 /ɨ/[ə]는 중국어의 /e/[ɤ]보다 발음 위치가 앞에 놓여 있지만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ə]를 [ɤ]로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다. 중국어는 /ɨ/를 소리 낼 때 입을 반쯤 벌리고 “으어”라고 발음 한다. “으”는 입속으로 약하게 하고 짧게 소리 내기 때문에 “어”소리만 두드러지게 된다. 따라서 뒷부분의 “어”를 강조해서 발음하도록 하면 된다.

연습) 어머니, 머리 / 거: 머리

2) /ɯ/

	단모음	국제음성기호	실제발음
한국어	/ɯ/	[o]	[오]
중국어	/o/	[o]	[오어]

각 차시에 따라 A집단에서는 /ɯ/(1), /ɯ/(0), /ɯ/(0), B집단에서는 /

36) 이문규(2004): 달[tal]/ 사람[sɑ:ram], lead[li:d]/ read[ri:d]

ㅜ/(5), /ㅜ/(3), /ㅜ/(1)로 단모음/ㅜ/의 오류를 보였다. A집단에서는 거의 오류가 없었던 것은 비슷한 음소가 다른 조음점에 있음을 인식한 반면 B집단에서의 오류는 중국어의 음소의 인식에 앞서 언어 습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발음 지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중국어의 /ㅜ/는 입 모양을 둥글게“오”와 “어”의 중간 소리를 내는데 “오”를 두드러지게 소리를 내고“어”는 약하게 짧게 발음하지만 한국어의 /ㅜ/는 중국어의 /o/와 비슷하지만 중국어의 /o/보다 원순성이 강하고 혀의 위치도 높다. 따라서 발음을 할 때 중국어보다 혀의 위치를 약간 높게 해서 소리를 내도록 지도 한다. 연습) 오이, 오리, 노래 / 고: 향

3) /ㅜ/

	단모음	국제음성기호	실제발음
한국어	/ㅜ/	[u]	[우]
중국어	/u/	[u]	[우]

각 차시에 따라 A집단에서는 /ㅜ/(1), /ㅜ/(0), /ㅜ/(0), B집단에서는 /ㅜ/(9), /ㅜ/(7), /ㅜ/(4)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두 음소 소리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B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오류가 나타났다. 이는 중국어의 /u/는 한국어의 /ㅜ/에 비해 모음 사각도 상에서 높게 위치하고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우’를 발음하고 한 후 바로 ‘어’로 입 모양을 옆으로 벌리는 습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어의 /ㅜ/는 중국어의 /u/와 유사한 발음으로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면서 앞으로 내밀고 발음 한다. 한국어의 /ㅜ/가 중국어의 /u/보다 앞쪽으로 약간 낮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혀의 위치를 낮추어서 움직이도록 한다. 중국어의 /u/는 원순성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입술을 내밀지

않도록 지도한다. 또한 ‘우’를 발음한 상태로 있어야 하는데도 입 모양이 ‘어’로 움직이는 학습자에게는 중국어의 /ü/ 발음할 때와 같이 움직이지 않아야 함을 설명한다.

연습) 우유, 우리, 구두 / 주: 사, 구: 두(口:頭)

4) /ㅡ/

	단모음	국제음성기호	실제 발음
한국어	/ㅡ/	[ɯ]	[으]
중국어	없음	없음	없음

각 차시에 따라 A집단에서는 /ㅡ/(4), /ㅡ/(4), /ㅡ/(5), B집단에서는 /ㅡ/(7), /ㅡ/(5), /ㅡ/(3)의 오류를 보였다. 한국어 단모음 /ㅡ/가 두 집단 모두에서 40%이상의 오류를 보였다. 이것은 한국어 음운 체계에서는 존재하는 음소가 중국어의 음운 체계에선 부족한 경우이다. 단모음 /ㅡ/는 입술을 편 상태에서 혀를 연구개 쪽으로 접근시켜 내는 소리인데 대부분의 중국인 학습자들은 /ㅡ/를 중국어의 /ㄱ/로 대치해서 발음을 하였다.

한국어의 /ㅡ/는 중국어에 해당되는 음소가 없는 모음으로 /e/[ɤ]의 발음 위치에서 앞부분의 /ㅡ/의 발음만 하면 비슷한 음이 되는데 아랫니와 윗니가 닿을 정도로 벌리고 혀의 뒷부분을 입천장 쪽으로 하고 입술을 평평하게 하여 소리를 낸다. 다른 단모음에 비해 연습의 양이 더 필요한 모음이다. 연습) 음악, 흐르다, 은, 금 / 음: 식, 음: 료수, 그: 립

5) /ㅐ/

	단모음	국제음성기호	실제 발음
한국어	/ㅐ/	[ɛ]	[애]
중국어	/ê/	[ɛ]	[애]

A집단에서는 각 차시에 따라 /h/(5), /h/(5), /h/(4), B집단에서는 각 차시에 따라/h/(4), /h/(2), /h/(1)로 A집단이 B집단보다 오류 수가 더 높았다. 이것은 이미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는 A집단의 학습자들이 /k/와 구별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B집단에서는 이틀간의 발음 연습이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단모음/h/의 경우는 모국어에서의 이음(allophone)이 목표어에서는 음소인 예로 설명할 수 있다. 영어의 [p]와 [b] 그리고 [l]과 [r]은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음소로 소리가 나는 반면 한국어의 된소리[p']는 영어에서 하나의 음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³⁷⁾ 중국어의 음소/e/는 [i]앞에서는 [ei]로 읽고, [i]뒤에서는 [ie]로 소리 낸다.³⁸⁾ 이와 같이 중국어의 /e/는 혀의 위치에 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발음에 차이가 나는 소리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h/를 발음할 때는 입술을 펴서 옆으로 벌려 윗니와 아랫니가 다 보이도록 발음한다. 입 모양을 더 벌리면 혀가 내려가기 때문에 입 모양을 움직이지 않고 발음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주의를 시켜 발음 지도 한다.

연습) 채소, 개미, 새털/ 개: 다

6) /k/

	단모음	국제음성기호	실제 발음
한국어	/k/	[e]	[에]
중국어	없음	없음	없음

37) 한종임(1999)에서는 영어에서는 음소이지만 한국어에서는 이음인 소리들에 교수의 초점을 맞춘 발음 지도를 의사소통 교수법과 부합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과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말하기, 듣기 활동과 연관 시켜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8) 음소의 위치 때문에 생긴 변이음으로 조건 변이음 혹은 위치 변이음이라고 한다.

A집단에서는 /ㄷ/(7), /ㄷ/(5), /ㄷ/(4), B집단에서는 /ㄷ/(4), /ㄷ/(3), /ㄷ/(1)로 단모음 /ㅏ/에서의 결과와 같이 A집단이 더 많은 오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발음 교육의 향상은 학습 기간의 길고 짧은 것에 좌우되는 것 보다는 학습 유무의 상태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중국어에는 한국어의/ㄷ/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모음이 없다. 그러나 혀의 앞부분을 경구개 쪽으로 /i/ 보다 낮게 올리면서 /i/ 보다 입 모양을 조금 더 벌려서 혀의 위치를 낮추어 발음하도록 한다. 장음의 위치가 중국어의 [ei] [에이] 라고 발음할 때 더 가깝다.

연습) 배개, 네, 가게/ 세: 모, 세: 로

4.2 음철법에 의한 발음 지도

음철법은 발음 지도를 하는데 있어 철자와 발음 사이의 규칙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그 규칙에 따라 철자와 발음과의 상관관계를 인식하면서 발음을 지도하는 것으로 초기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이 음소의 조음법을 지적받으면서 정확한 발음을 익힐 수 있다. 따라서 음철법에 따른 발음 지도 세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음소의 결합 관계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한국어의 음절 구조는 초성, 중성, 종성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반면 중국어는 성모와 운모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하나의 음절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음절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런 이유로 음철법에서 철자 교육과 발음 교육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한 방법으로 이루고자 한다면 음절 단위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³⁹⁾ 둘째, 조음 방법을 지도할 때

39) 3.2장에서 <한국어의 음절 구조 유형>을 제시하였다.

는 가능하면 먼저 받침이 없는 글자, 철자와 발음이 같은 글자,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글자부터 단계에 따라 추상적인 어휘를 가르친다.⁴⁰⁾ ‘고삐’나 ‘싸리비’와 같은 어휘는 받침은 없는 글자이지만 의미보다 발음에만 중점을 두게 되면 뜻을 설명하는데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가 있을 수 있고 초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학습의 어려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셋째, 영어에서는 동일한 어군의⁴¹⁾ 문장을 연습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첫 글자가 같은 단어를 연습한다. 예를 들면, “가”로 시작하는 글자는 “가수”, “가방”, “가로수”, 등이 있다. 또한 받침이 없는 단어와 받침 있는 단어로 분류해서 학습을 진행한다. 다음에서 음절 구조에 의한 발음상의 차이를 최소 변별상을 이용하여 단계별로 제시할 것이다.

청각 구두 교수법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발음 지도 기법으로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발음하기 어려운 소리들을 대조시키면서, 연습을 위해 최소 변별쌍을 이용한다. 초성의 조음 방법에서 평음, 경음, 격음 등을 구별하여 발음할 수 있도록 개별음을 듣고 발음 연습한 후 글자를 식별한 다음, 문장 속에서 구별하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방식은 학습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효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1음절 2음절 3음절 단어로 연습을 시켜 최소 대립쌍의 단어를 제시하여 의미 변별이 일어남을 알게 한다.

40) 이종은(1997)에서는 초보적 발음 훈련은 글자와 음소가 동일한 음성을 가지고 동류별 단어를 통하여 나열하는 일이라고 했다.(예: 나무, 소, 아기 등) 이런 동류별 단어를 통하여 언어학적 의미와 실생활의 의미가 부합되는 단어를 읽는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1) ‘-ool’의 동일한 어군으로는 ‘cool’, ‘fool’, ‘pool’등이 있다.

(1) 받침이 없는 경우

	소리 1	소리 2	소리 3
1음절	가[가]	까[까]	카[카]
2음절	가수[가수]	까치[까치]	타조[타조]
3음절	가로수[가로수]	까마귀[까마귀]	카메라[카메라]

(예문)

가을이 오면 커튼을 바꿀까?

그 가수는 까치와 타조를 좋아한다.

가로수에 있는 까마귀를 카메라로 찍었다.

(2) 받침이 있는 경우의 발음 지도

1) 홀받침

	소리 1	소리 2	소리 3
1음절	달[달]	딸[딸]	탈[탈]
2음절 ⁴²⁾	음악[으막]	발음[바름]	국어[구거]
3음절	나뭇잎[나문닙]	부산역[부산녁]	합니다[함미다]

42) 표준 발음법 제 13항에 의거하면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혹은 접미사와 결합할 때는 제 음가대로 발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받침 위치에서 발음되는 것은 아니고 뒤 음절에 연음이 되어 뒤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된다.”

<연음 법칙>

홀받침: 앞 음절의 끝 자음이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간다.	
1.한 단어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	국어[구거], 발음[바름]
2.단어와 조사가 결합되는 경우	꽃을[꼬츨], 수박을[수바글]
3.과생명사인 경우	말아들[마다들]
4.용언의 명사형이 올 경우	웃음[우슴], 먹음[머금]
겹받침: 앞 음절의 끝 두 자음 중 한 자음이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간다.	
1.명사에 조사가 결합되는 경우	값이[갑시], 닭이[달기]
2.용언에 조사가 결합되는 경우	넓어서[닐버서], 짧으니[짤브니]

(예문)

달을 좋아하는 딸은 달 모양의 탈을 만든다.

음악 시간에도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를 부른다.

부산역 앞의 큰 나무는 나뭇잎이 노랗다.

2) 겹받침

	소리 1	소리 2	소리 3
1음절	닭[다]	흙[혹]	값[갑]
2음절	밭다[발따]	넓다[널따]	없다[업따]
3음절	싫어요[시러요]	읽어요[일거요]	앉아요[안자요]

받침이 없는 경우 음절수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어휘들이 기저형과 표면형 즉, 표기와 발음이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홑받침과 겹받침이 있는 경우는 학습 단계에 따라 지도를 해야 하는데 먼저 중성(받침)이 있을 때는 7개의 대표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ㅇ/으로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음운 변동에 대한 규칙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또는 초기 학습자들에게는 겹받침이 있는 어휘에서 과도한 음운 규칙에 대한 설명은 후행 학습으로 미루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은 초기 학습자에게는 규칙보다 소리를 먼저 인지 시키고 나서 발음 규칙을 설명하면 이해력이 있는 성인 학습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형복(2006:120)의 ‘어휘 내에서의 발음 규칙 빈도’를 비교한 <표7>에 의하면 연음 법칙은 경음화 다음으로 빈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로 한국어 발음 학습 시에는 한 단어에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와 조사와 결합해서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경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단계별로 학습을 시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4.3 종성 폐쇄음 발음 지도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종성 폐쇄음 /ㄱ, ㄷ, ㄴ/ 발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발음하기 어려운 단모음과 종성 폐쇄음의 경우 이론적인 설명과 더불어 중국어에서 사용하는 한자 병음처럼 영어로 적어주는 방법이 있다. 즉, 한국(韓國)을 ‘han guo’ 라고 하듯이 운동화는 ‘un dong hwa’라고 표기해 준 다음 소리를 듣고 발음을 연습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들이 /우/ 발음을 할 때 중국어의 ü /yu/를 발음할 때처럼 입모양을 바꾸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위’하고 소리 내는 것과 같다고 비교 설명해준다.

둘째, 처음 발화시에는 하나씩 음절을 끊어서 읽어 준 후에 한꺼번에 읽어주어서 음운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앉아요’를 하나씩 읽을 때는 앉[안] /아[아] /요[요]로 발음이 되지만 붙어서 읽을 때는 ‘앉아요’/[안자요]로 발음이 되는 것을 인지시킨다.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에게는 음운 규칙을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하지만 초기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문자와 소리의 차이를 먼저 청각으로 구별한 후에 시각적으로 써 준다.

셋째, 교사는 학습자들이 인지와 발화에서 어떠한 오류가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학습자들의 모국어에 없는 소리의 경우에는 인지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도 있다. 또한 인지는 되었으나 혀와 입 모양의 습관으로 정확한 발화가 되지 않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 한국어 교사는 입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실제로 보여 주면서 모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 모방이 아니라 혀의 위치나 입 모양을 인식하고 소리를 내도록하기 위해서이다. 이때 교사는 테이프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학습자들을 관찰할 수도 있다.

넷째,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소리를 듣게 한다. 즉, 교실 수업에서 학습자 자신의 소리를 직접 간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오른쪽 손바닥을 편 상태에서 손가락은 붙이고 약간 오므려 오른쪽 귀에 대고 왼쪽 손도 손가락을 붙여 편 상태에서 코 아래로 가져가서 약간 오므려서 입을 막는 듯이 한다. 그리고 왼쪽 손가락 끝부분을 오른쪽 손목 부위와 연결해서 발음을 연습시킨다. 이것은 스스로의 발음을 듣고 연습하는 자연 장치이다. 교실에서 뿐 아니라 수업이 끝난 후에도 장소에 상관없이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다섯째, 모음사각도와 혀의 위치 그리고 입 모양을 통해서 조음 위치에 대한 인식과 반복 훈련, 한국어 교사의 지속적인 발음 지도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부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부록4 참조)⁴³⁾

4.4 한국어의 장단⁴⁴⁾과 억양을 이용한 발음 지도

한국어의 표준 발음법에서는 모음의 길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지금의 한국어 현실에서는 모음의 길이에 대한 구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⁴⁵⁾ 하지만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습자들에게는 모음의

43) 한국어 교사에 대한 인식 조사는 현재 부산 시내에 있는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15명의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남자 3명과 여자 12명으로 교육 경력이 6개월에서부터 10년까지 다양하였다. 가르치는 영역에 있어서도 중국인, 일본인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캐나다, 미국, 러시아 등 많은 나라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44) 이현복(2004)에서는 장음은 단음보다 모음 사각도에서 외곽에 위치한다. 예를 들어 이십 이:십/i:shib/에서 첫 음절의 [이:]는 두 번째 음절의 [이]보다 길이가 길 뿐 아니라 혀의 위치도 높고 전진하여 있어서 소리 값이 기본 모음 제 1에 가깝게 난다고 하였다.

길이는 바로 발음의 유창성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필요 없는 학습이라고 해도 성조를 가지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발음을 지도할 때는 음의 길이를 함께 이해시킨다면 학습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⁴⁶⁾

한국어의 장단음과⁴⁷⁾ 중국어의 성조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두 가지 모두 의미의 분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장단을 정확하게 발화할 수 있다면 의사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보다 정확성을 기할 수 있듯이 중국어의 성조를 잘못 발음하게 되면 의미 전달에 있어 혼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의 장단음과 같은 훈련과 반복 연습을 필요로 한다. 또한, 서재기(2005)는 발음을 소리만으로 학습하는 것 보다 실제 발음을 하는 화자의 입모양과 혀의 위치가 이동하는 과정을 직접 봄으로써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어민과 비슷한 발성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성조를

45) 손호민(1999)에서는 음소의 모음 길이가 어휘적인 항목에서 다르다. 즉, 새 new와 새:bird, 발foot과 발:screen, 배fruit와 배:double, 술wine과 술:tassel, 골marrow과 골:valley등이 있다. 게다가, 모음은 강조나 의미적인 목적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 어휘적 장모음이 보통 단모음보다 두 배정도 긴 반면, 강조나 의미적인 길이는 보통 더 길고 화자의 감정적인 긴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였다.

46) <한국어의 장단>

①눈[눈:] [雪]/눈[눈] [眼]

②말[말:] [言]/말[말] [馬]

③밤[밤:] [粟]/밤[밤] [夜]

④부자[부:자] [富者]/ 부자[부자] [父子]

47) 장모음은 단지 구의 첫 음절에서만 나타난다. 장모음을 가진 음절이 단어나 접두사와 같은 다른 음절 뒤에 나타나게 되면 장모음은 단모음으로 바뀐다. 따라서 ‘눈[雪]’[nu:n]은 ‘흰눈’[hin.nun]이 된다. 모음 길이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은 한국인들의 언어 습관상 긴 음절을 짧게 발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해하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장단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 학습자들에게 음 길이의 설명을 중국 성조에 비교해서 지도를 하면 성조로 인한 소리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음으로써 발음 오류가 일어나도 스스로 교정을 할 수 있게 된다.

황현숙(2004)에서는 음성 실험을 통해서 중국인 화자들이 한국어를 발화할 때 중국어 억양의⁴⁸⁾ 간섭 현상이 나타난다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한국어의 특성인 성조의 영향을 받아 한국어를 발음할 때도 유사한 억양으로 실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국어에서의 억양은 대체로 문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발음의 유창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초기 학습자들에게 평서문과 의문문 같은 문장의 종류에서는 반드시 지도를 해야 한다. 황현숙(2004)의 실험을 통해 이미 중국인 화자들이 한국어의 의문문과 평서문을 발화할 때 억양을 인지하지 못하고 중국어 억양으로 발화한다는 결과는 본 연구에서의 직관과 청각에 의존한 자료에 객관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따라서 음소의 지도가 발음의 정확성을 높여주는 것이라면 장단과 억양의 지도는 유창성을 첨가하는 것으로 발음의 질을 높여 의사소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에 <표 9>와 같이 장단과 억양을 이용해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발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48) 황현숙(2004)에서는 억양이란 발화 시 음높이가 일정한 유형을 띠면서 만들어내는 말의 가락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억양에 대한 의미론, 화용론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표 9> 장단과 억양을 이용한 발음 지도

종류	구분	발음 지도 방안
장단	눈[눈:] [雪]	장음인 경우는 중국어의 3성인 상성에 가깝게 소리 내도록 지도 한다. ⁴⁹⁾
	눈[눈] [眼]	단음인 경우는 중국어의 1성인 음평으로 소리 내도록 지도 한다
억양	의문문	문미의 억양에서 하강조나 평성으로 발화하려는 경향이 많다. 상승조로 실현하기 위해 중국어의 2성인 양평으로 소리 내도록 지도 한다.
	평서문	하강조로 실현되어야 하는 문장을 대체로 2성인 양평으로 발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하강조의 실현을 위해 1성인 음평으로 소리 내도록 지도 한다.

49) 이현복, 심소희(1999)에서는 성조의 음 높이 변화가 음의 길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성조의 3성과 4성은 1성과 2성에 비해 음장이 대체로 긴 편이며, 성조를 단독으로 발음할 때는 4성 < 2성 < 1성 < 3성으로 3성(상성)이 가장 길게 소리 난다고 하였다.

5.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발음 교육 때 발생하는 오류를 통해서 보다 실제적인 학습 지도 방안에 접근하고자 했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많은 대조 분석을 하였지만 학습자들의 능력이나 수준에 대한 고려는 제외되어 있었다. 음운 변동이나 발음의 규칙은 학습 단계에 따라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발음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과도한 음운 변화에 대한 설명이 학습자의 수준을 배제한 상태로 나열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 1장에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다시 언급하였다.

제 2장에서는 지금까지의 한국어 발음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이론적인 제시를 살펴보았다. 또한 발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학자들의 발음 지도 방법을 토대로 실제 교실 수업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달라지는 언어 교수법에 따른 발음 교육의 시대적인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현시점에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학습 단계에 따라 정확성과 유창성에 대한 강조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초기 학습자들에게 유창성을 강조하게 되면 발음의 정확성이 부족해지고 중·고급의 학습자들에게 발음의 정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의사소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 구성원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습득이 쉬운 발음 지도를 제시하였다.

제 3장에서는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청지각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단모음 8개와 초성 자음을 배

제한 한국어 중성 폐쇄음 /ㄱ, ㄷ, ㅂ/으로 실험을 하였다. B집단은 현재 발음 교육을 받고 있으며 A집단은 발음 교육을 받지 않고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지 3년, 4년 정도 되는 학습자들로 구성되었다. 발음 오류의 원인으로서는 단모음 체계의 차이, 중성 폐쇄음, 음절 구조의 차이, 성조로 인한 발음의 오류를 보였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 초기 단계에 있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발화하는 데 있어 <표 5>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부정확하거나 생략된 발음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제 4장에서는 3장의 발음 오류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해서 발음 교육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의미 있는 시도는 첫째, 학습의 기간과 발음의 정확성은 비례하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학습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음이 교정될 것이라는 예측은 오히려 발음 교육을 초기 학습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교정이 힘들다는 결과를 얻었다. 둘째, 음운론적인 지식만으로는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분절적인 요소와 초분절적인 요소는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만 발음 교육에 있어 강조하는 정확성과 유창성이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해 성조로 인한 발음의 부정확함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음성 실험을 통해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초기 학습 시 실시할 수 있는 발음 교육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1. 발음 교육을 하면 먼저 소리 내야 한다고 여기지만 정확하게 듣고 음성을 인지해서 발화하는 방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발음 교육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시각적인 이해--> 청각적인 인식--> 발음하기-->수정 단계-->확인 단계-->활용 단계

2. 시각적인 이해에서는 모음 사각도와 입모양 그리고 혀의 위치와 움직임 등을 보며 자신의 모국어와 목표어 소리의 차이를 인식한다.
3. 인지하는 소리와 발화하는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학습자가 있는지 한국어 교사는 과악을 해서 설명을 한다. 4.3장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단모음 /기, ㅈ, ㅊ, ㅌ, ㄱ, ㅋ/는 직접 입모양을 보여 주면서 여러 번 반복 연습을 하며 자신의 소리를 듣게 한다.
4. 단모음에서의 장음은 중국어의 성조를 이용해서 설명을 한다. 한국어의 장음은 음의 길이를 나타내고 중국어의 성조는 음의 높이를 나타내지만 길이와 높이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5. 한국어의 단모음과 중성 폐쇄음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청 지각에 의한 조사에 따라 단모음을 정확하게 익히면 중성이 있는 음절의 발음 시에도 오류를 적게 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 학습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6. 초기 학습 단계에서 발음 교육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유창함에도 불구하고 발음의 오류로 인해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수업 진행에 앞서 학습자들의 한국어에 대한 기초 인식 조사와 발음에 대한 태도를 조사 분석해서 학습 요구에 부응하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참고 문헌

- 고경석(2002). “의사소통 활동 중심의 영어 발음 지도 수업 모형”. 교육 논총 제19권. 인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 연구소.
- 곡향봉(2005).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수경(2003).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 구사 단계별 한국어와 중국어 비교”. 언어와 언어교육 제18권. 동아대학교 국제 교육원.
- 김지혜(2004).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중성 발음 교육 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복(2006).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금송(2000).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대규(1986). “한국어의 발음교육에 관한 연구-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을 중심으로”. 매지논총 2. 연세대학교 매지학술 연구소.
- 노향숙(1998). 한국어 발음 교육을 위한 원격교육시스템 설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연희(2001). 중국 대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맹주억(1999). “중국어 발음 교육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관하여”. 중국 연구 제23권. 한국외국어대학 외국학 종합연구 센터 중국 연구소.
- 박미경(199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2000). “한국어 교육에서의 외국어 교수법 활용 방안”. 지역학논집 4호. 숙명여자 대학교 지역학 연구소.
- 박시균(1998). “영어 화자가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한국어 음운과 한국어 음운 교육 개선 방안”. 한글 242호. 한글 학회.
- 박진원(2001). 한·중 여성 화자의 한국어 발음의 실험음성학적 대조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해연(2004).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초분절 음소 발음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재기(2005). 정확한 영어발음지도를 통한 영어 청취력 향상 방안.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대환(1999). “한국어 발음 교수를 위한 개괄”. 말 23·24. 연세대학교 언어 연구 교육원 한국어학당
- 유신혜(2001).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 발음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동훈, 김충실(2005). 한글로 배우는 표준 중국어 발음. 박이정.
- 이문규(2004). 국어 교육을 위한 현대 국어 음운론. 한국문화사.
- 이소연(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중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은(1997). “한국어 발음 교수 방법과 모형”. 교육한글 10. 한글학회.
- 이주행(2002). “한국어의 발음 교육 방법-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 중 언어학 제20호. 이중언어학회.
- 이향(2002).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재 개발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복, 심소희(1999). 중국어 음성학. 교육과학사.

- 이현복(2004). “한국어의 표준 발음-이론과 실제”. 제8회 국외 한국어 교사 연수회.
- 이호영(1996). 국어 음성학. 태학사.
- 임수희(2003). 한국어의 음절 구조에 의한 철자와 발음 교육.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나영(199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지도”. 말 18. 연세대학교.
- 전미순(2001). 일본어 모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은주(1999). 말하기·듣기 교육론. 박이정.
- 전원해(2005). 중국 학생들의 한국어 발음오류 연구-자음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 조성문(2000). “효율적인 한국어 발음 교육을 위한 연구-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민족 문화 연구 제 6집. 한민족 문화학회.
- 정정덕(200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수법 한국어 발음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 8집. 창원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 최윤환(1995). “이, 목, 구 훈련을 통한 체계적 표준발음 지도 방안”. 한글 교육 8호. 한글 학회.
- 학미(2006). 한국어와 중국어의 단모음 비교 연구-실험 음성학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승애(2003). 중국어 발음에 관한 교학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종임(1999). “한국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발음 오류 분석을 통한 발음 지도 방안”. 교과교육학 연구 제3권 2호.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 연구소.
- 황현숙(2004).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억양 실태 연구”. 인문학 연구

제 31권 2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H. Douglas Brown(2004). 원리에 의한 교수 언어 교육에의 상호작용적 접근법(제2판). Longman.

Son ho-min(1999).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부록 1> 한국어 학습자의 기초 인식 조사

문항	보기	A반 (12)	B반 (13)	전체(%)
1.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1) 진학	9	4	52%
	2) 취업	2	6	32%
	3) 결혼	1	1	8%
	4) 취미	0	1	4%
	5) 기타	0	1	4%
2. 한국어에 대한 흥미는 어떻습니까?	1) 매우 흥미 있다	9	6	60%
	2) 흥미 있다	2	4	24%
	3) 조금 흥미 있다	0	2	8%
	4)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1	1	8%
3. 한국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2번에서 4번이라고 한 사람만 답하세요)	1) 기초 실력이 없어서	1	0	50%
	2) 수업 시간이 재미없어서	0	0	0%
	3) 한국어가 어려워서	0	1	50%
	4)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0	0	0%
4. 한국어 수업할 때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1) 말하기	7	6	52%
	2) 듣기	2	3	20%
	3) 읽기	2	2	16%
	4) 쓰기	1	2	12%
5. 한국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1) 말하기(발음)	1	2	12%
	2) 듣기	2	2	16%
	3) 문법	4	4	32%
	4) 쓰기	2	2	16%
	5) 발음	3	3	24%
6. 한국어 수업에서 더 배우고 싶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1) 말하기	2	4	24%
	2) 듣기	2	3	20%
	3) 문법	2	2	16%
	4) 쓰기	3	1	16%
	5) 발음	3	3	24%

<부록 2>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교육에 대한 태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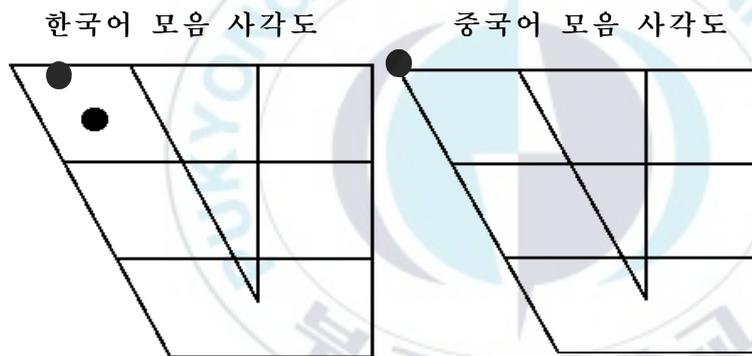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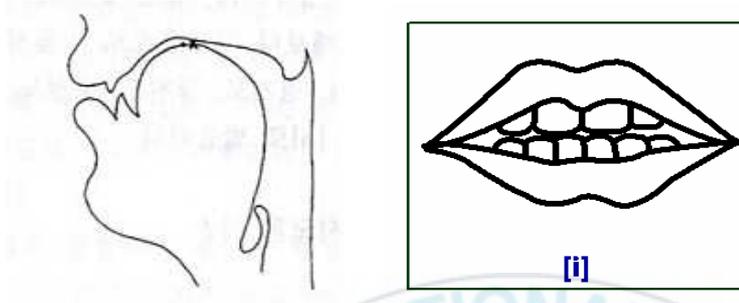
문항	보기	A반 (12)	B반 (13)	전체(%)
7.자신의 발음을 다른 사람이 잘못 알아들은 적이 있습니까?	1) 자주 있다	4	9	52%
	2) 가끔 있다	6	4	40%
	3) 전혀 없다	2	0	8%
8.발음을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1) 중국 친구에게 물어 본다	2	4	24%
	2) 선생님께 여쭙어 본다.	4	5	36%
	3) 한국 친구에게 물어 본다	5	1	24%
	4) 확인하지 않는다.	1	3	16%
9.자신의 한국어 발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 좋다	3	2	20%
	2) 보통이다	6	5	44%
	3) 나쁘다	3	6	36%
10.한국어 발음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1) 그렇다	4	9	52%
	2) 보통이다	6	3	36%
	3) 아니다	2	1	12%
11.왜 한국어 발음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1) 중국어와 달라서	3	8	44%
	2) 표기와 발음이 달라서	4	5	36%
	3) 예외가 많아서	5	0	20%
12.한국어 발음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1) 필요하다	6	9	60%
	2) 보통이다	5	4	36%
	3) 필요 없다	1	0	4%
13.한국어 수업 시간에 발음을 더 강조해서 배우고 싶습니까?	1) 그렇다	6	9	60%
	2) 보통이다	5	4	36%
	3) 아니다	1	0	4%

<부록 3> 한국어 교사의 발음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문항	보기	(명)	전체 (%)
1.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지도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1)말하기	1	7%
	2)듣기	2	13%
	3)읽기	2	13%
	4)쓰기	4	27%
	5)문법	3	20%
	6)발음	2	13%
	7)기타	1	7%
2. 만약 발음 지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발음 교육 과정의 문제	4	27%
	2)발음 교재의 문제	6	40%
	3)발음 지도 이론의 부족	5	33%
3. 한국어 교육에서 발음이 중요하다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한국어를 배우는 자신감	5	33%
	2)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8	54%
	3)한국인처럼 말하기 위해	2	13%
4. 학습자들의 발음을 향상 시키는데 있어서 장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듣기가 부족해서	6	40%
	2)문화 차이로 인해서	1	7%
	3)언어 차이로 인해서	3	20%
	4)말할 기회의 부족으로	4	27%
	5)기타	1	7%
5. 자신의 음성학 이론 지식은 어느 정도입니까?	1)매우 자신 있다	4	27%
	2)보통이다	9	60%
	3)자신 없다	2	13%
6. 현재 어떤 식으로 발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1)이론적인 설명과 제시	7	47%
	2)개인 경험 위주의 학습	2	13%
	3)이론과 경험을 결합시킴	3	20%
	4)학습자에게 알맞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	2	13%
	5)기타	1	7%
7. 발음 교육은 어느 단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1)초급	3	20%
	2)중급	5	33%
	3)고급	7	47%
8. 발음 교육을 위해 어떠한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1)듣기 자료	5	33%
	2)읽기 자료	2	13%
	3)학습 지도안	3	20%
	4)말하기 연습 자료	4	27%
	5)기타	1	7%

<부록 4> 단모음 소리 내는 혀의 위치와 입 모양-한국어와 중국어의
모음 사각도⁵⁰⁾

/i/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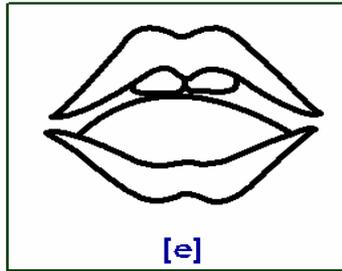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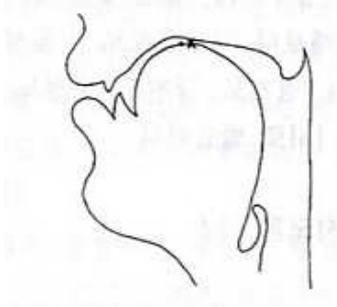


[발음 지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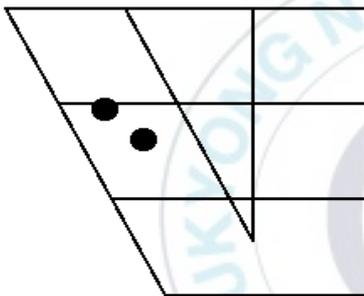
중국어 i [i]의 혀 위치가 한국어의 i [i]와 [i:]보다도 높고 긴장된 모음이다. 따라서 혀의 위치를 낮추기 위해 입술을 약간 벌리면서 아랫니와 윗니가 맞닿을 정도에서 발음하도록 한다.

50) 이호영(1996)에서 혀의 위치와 한국어 모음 사각도를 자세히 참조할 수 있다. 입 모양은 www.korean-edu.com 참조했으며, 이동훈, 김충실(2005)에서의 중국어 모음 사각도를 참조해서 각 모음별로 분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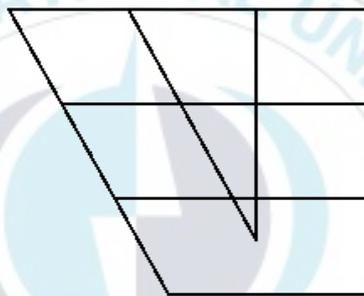
/ㅔ/ ---[e]



한국어 모음 사각도



중국어 모음 사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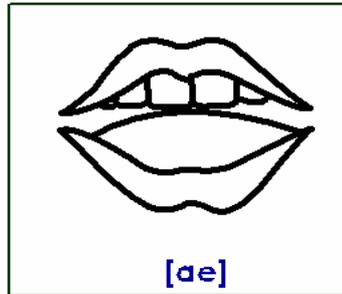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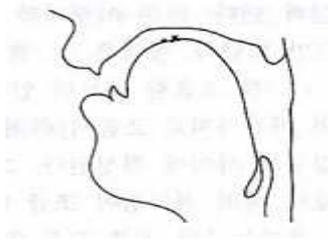


(없음)

[발음 지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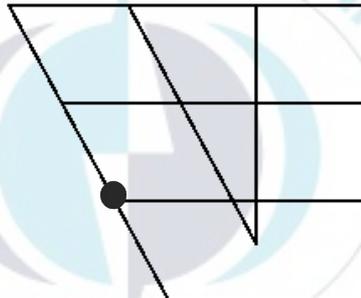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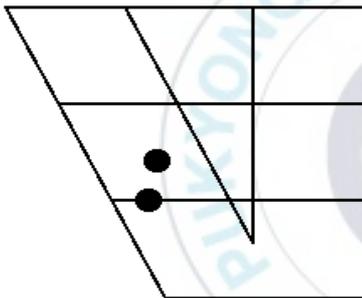
혀끝을 아랫니 뒤에 대고 입술은 옆으로 약간 펴서 소리 낸다. 혀의 위치는 낮추어 /ㅕ/ [ɛ]보다 입을 덜 벌려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해서 발음하도록 한다.

/ㅞ/ ---[ɛ]



한국어 모음 사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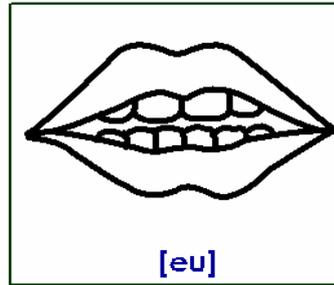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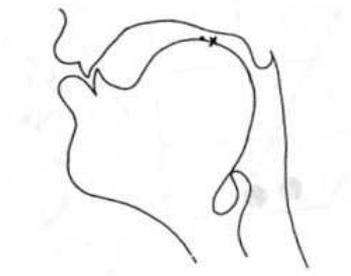
중국어 모음 사각도



[발음 지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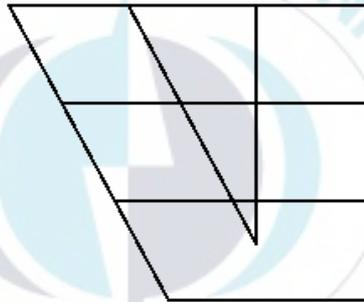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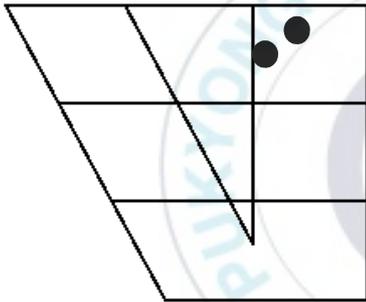
혀의 위치는 /ㅞ/를 발음할 때보다 더 낮은 위치로 내린다. 입술을 펴서 옆으로 벌려 윗니와 아랫니가 다 보이며 손가락 두 개가 들어 갈 정도로 벌려 발음한다.

/ㅡ/ ---[ㅓ]



한국어 모음 사각도

중국어 모음 사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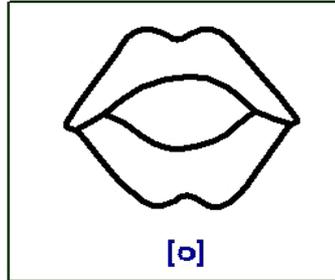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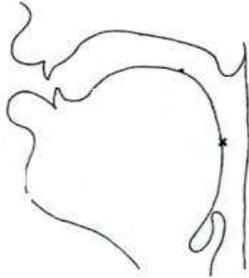


(없음)

[발음 지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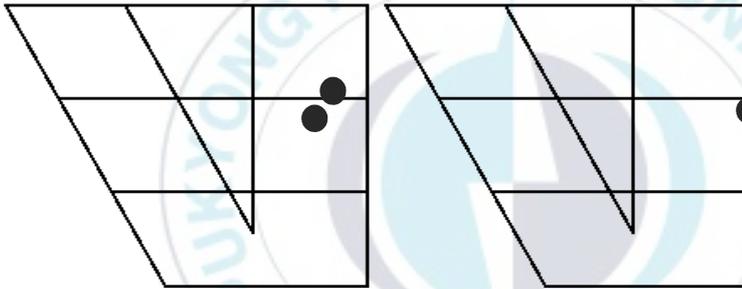
입술을 펴고 혀끝은 아랫니 뒤쪽에 위치하지만 아랫니에 닿지 않도록 한다. /l/를 소리 낼 때처럼 아래 어금니와 윗 어금니가 거의 맞닿을 정도로 한다. 혀뿌리는 여린입천장 쪽으로 올린다.

/ㅛ/ ---[o]



한국어 모음 사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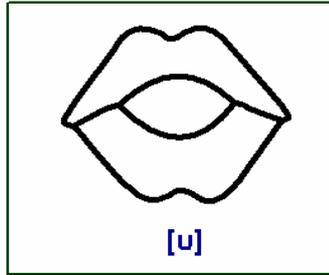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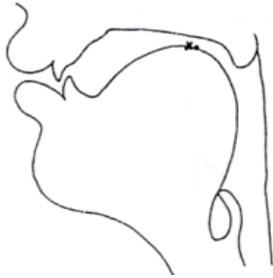
중국어 모음 사각도



[발음 지도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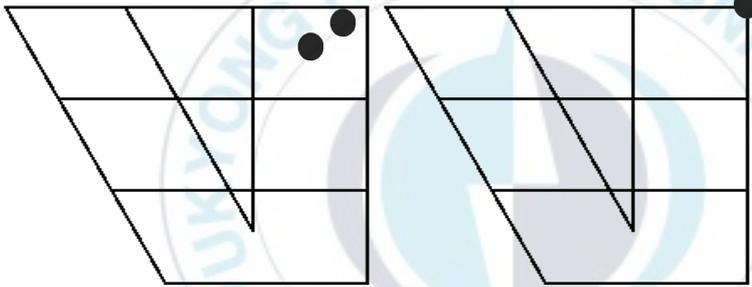
입술을 둥글게 하고 소리를 낸다. /ㅛ/를 발음 할 때는 혀끝은 아랫니 뒤쪽에 위치하지만 아랫니에는 닿지 않는다.

/ʉ/ ---[u]



한국어 모음 사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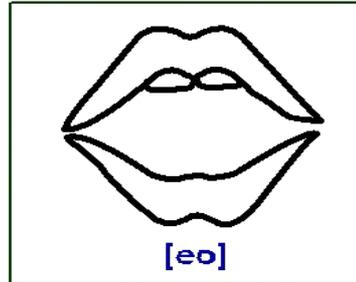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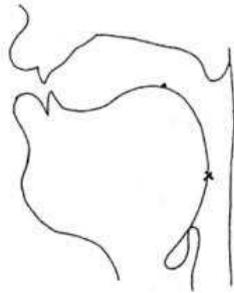
중국어 모음 사각도



[발음 지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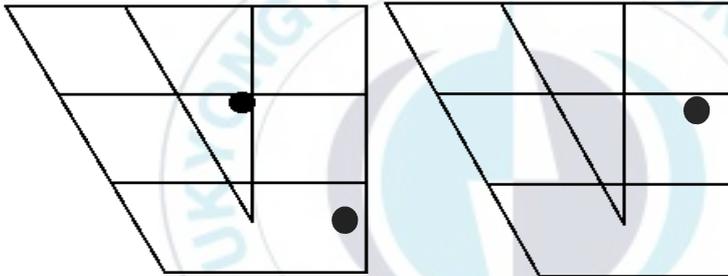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고 앞으로 내밀어 소리를 낸다. 이때 지나치게 내밀지 않도록 한다. 혀의 양 옆은 위 어금니에 약간 닿는다.

/ㅛ/ ---[ə:] / [ʌ]



한국어 모음 사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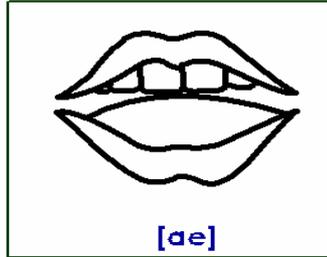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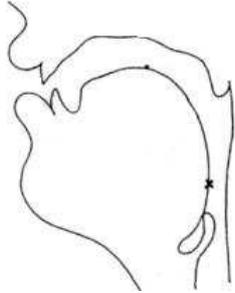
중국어 모음 사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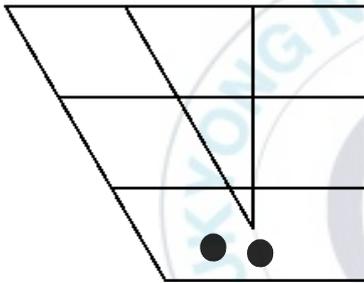
[발음 지도 7]

[ə:]를 소리 낼 때는 입술을 조금 펴서 혀끝을 아랫니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지만 아랫니에 닿지 않는다. 혀의 양 옆은 어금니에 거의 닿지 않을 정도로 내린다. [ʌ]를 발음 할 때는 입술을 자연스럽게 하고 [ə:]보다 크게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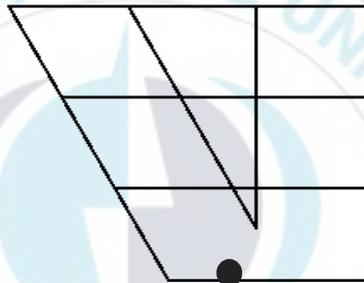
/ㅏ/ ---[a]



한국어 모음 사각도



중국어 모음 사각도



[발음 지도 8]

혀끝은 /ㄱ/를 발음할 때 보다 더 낮은 위치로 내린다. 중국어의 /a/[A]는 발음 할 때 혀를 뒤로 한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소리를 낼 때는 혀의 위치를 약간 앞으로 해서 발음하도록 한다.